

14일 Market Index			
↑ 코스피	3202.03	↓ 코스닥	799.37
	(+26.26)		(-1.10)
↑ 금리 (미국 9년)	2.474	↑ 환율 (원/달러)	1380.20
	(+0.026)		(+4.80)

metro 경제

비트코인
12만 달러
연일 신고가
02

관세·내수침체 악재 속 임단협 격화

車·조선 노조, '정권공약' 안고 압박

한국GM 노조 파업 이어 현대차·기아도 이견 팽팽 정년 연장·주4.5일 총동 성과급 수천만원 격차 커

한국 제조업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계가 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을 협상 테이블에 함께 포함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압박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속에서 일부 노조의 부분 파업까지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하루 2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또다시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달 전체 조합원 6851명을 대상으로 찬성투표에서 88.2%의 찬성률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좀처럼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월 14만 13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의 500%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



(위)지난달 26일 현대차 노조가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올해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체 조합원 출정식을 개최했다. (아래)한국지엠 부평공장. /뉴시스

른 성과급과 격려금은 각각 4136만원과 2250만원으로 총 6390만원에 달한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월 6만 300원 인상, 성과급 1600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GM은 최근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까지 확대되면서 경영 부담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결정에 따라 15일을 기점으로 투쟁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기아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 이 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만 60세→64세)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노사는 지난 10일까지 9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가 15일 오후 진행되는 10차 임단협 교섭

에서 의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 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등도 임단협 테이블에 올랐다. 노조는 조선 업계의 정년 연장으로 숙련공 확보에 긍정적일 것으로 주장하지만 사측은 높은 인건비 등의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이 참가하는 4시간 파업에 이어 17일과 18일 연달아 7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과 내수 침체 등 위기 경영 환경에서 임단협 교섭 공전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만약 기업들이 이같은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GM의 경우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경우 본사에서 생산지를 이동하는 방안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초고령 사회, 자산관리 전략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장기 저성장 체질로 바뀐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메트로신문은 매년 개최하는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행사의 올해 주제를 '늦어지는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자산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 김민승 코비리서치센터장이 차례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한층 복잡 다양해질 자산시장의 변화를 짚고 안정적·효율적 제테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 행사명 :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
- ◆ 주제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 ◆ 일시 : 7월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40~14:00)
- ◆ 장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의 및 참가 신청 : 100세 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오징어·고등어 최대 '반값' 할인 여름성수기 한우 공급 30% 확대

기재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가공식품 할인 확산에 최선

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정부가 오징어·고등어·장어 등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또 한우 수요가 여름철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공급을 평시에 비해 1.3배로 늘리기로 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해 사전에 비축물량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재해 발생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산 재개를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 대행 제1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2면> 이 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 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11일부터 강원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약 60곳에서 수산물물 20~3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순차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하겠다"며 "호우 대비 현장지도와 함께 저수지·과수원·축사 시설점검, 농작물 작황관리 등 수급 안

정부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 목소리로 가족 사칭,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까지...

모르면 당한다... 급증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딥보이스로 가족·지인 흉내 로맨스 스캠에 속는 MZ 늘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에 국한됐던 기존 수법 대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인 사칭, 친분이 나 애정을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등 수법도 다양해졌다. 젊은 세대에서도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사전에 사기 유형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839건에 달한다. 2023년의 1만8902건과 비교해 10.2% 늘었다. 평균 피해액도 237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2배 가깝게 증가했다. 이어 올해 1분기(1~3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작년 1분기보다 17%가량 늘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 '신종 보이스피싱' 극성 2023년까지 감소세였던 보이스피싱이 다시 급증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과 수법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해서다. 신종 보이스피싱은 통화나 문자로 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유도하는 고전적인 수법과 달리, 유명인이나 가족을 사칭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금전을 유도한다.

고령자는 '딥보이스(인공지능 음성 합성)'를 활용한 가족·지인 사칭 사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일종인 '딥보이스'는 특정인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으로 악성 앱을 통한 통화 탈취도 가능해져,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고령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족이나 지인의 갑작스러운 급전 요구에 즉각 응하지 말고, 다른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악성 앱을 활용한 통화 탈취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확인 과정에는 반드시 다른 가족이나 이웃의 휴대 전화를 빌려 사용해야 한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 한줄뉴스



▲이진숙 청문회 이틀 앞... 국민검증단, 논문 검증 결과 공개한다 /사진 뉴시스
▲강선우 후보자 "尹정부서 성평등 의식 후퇴, 대한민국 뿌리 흔들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해수부 부산 이전 '쟁점'
▲주한日대사관 "수교 60주년 한일합동합창단 단원 공모"

▲국세청, 유튜버 21명 세무조사 89억 부과... 후원금 축소신고 등 철회
▲권영세 "인적쇄신보다 여당 독주 막아야...尹 탄핵 반대는 비난 어려워"

美 가상자산법 기대감... 비트코인 '12만 달러' 연일 신고가

(약 1억6570만원)

비트코인, 전일대비 3.73% 올라
일주일간 상승률 11.97% 달해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 가격 급등

“한두달 안에 12.5만 달러 가능성
기관투자자, 장기 포지션 유지할 듯”

가상자산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12만 달러를 돌파했고,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미 하원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비롯해 각종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를 앞두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14일 가상자산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께 전일보다 약 3.73% 오른 1BTC당 12만2314.12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10일 사상 최초로 11만200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나흘 만에 1만달러나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일주일 전 가격과 비교



14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내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

한 상승률은 11.97%에 달한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급등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8.15% 상승한 3041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총 3위인 리플(XRP)은 30.50%나 급등한 2.96달러에 거래중이다. 시총 4위와 5위인 바이낸스(BNB)와 솔라나(SOL)는 각각 6.01%, 10.23%의 상승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강세인 것은 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부터 일주일 동안 '크립토 워크(가상자산 주간)'로 지정하고, 3개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다.

가장 주요한 법안으로 여겨지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지위를 정의하고, 준비자산 요건, 발행 자격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가

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사용되는 만큼 사실상의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으로 여겨진다.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클래리티법)'과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법(CBDC법)'도 함께 논의된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관련 상품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는 권한을 명확히 해, 사후 규제나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다. CBDC법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행정부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을 주도하는 미 공화당은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3개 법안 모두 이른 시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법안이 표결을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BTSE의 제프 메이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비트코인 급등이 장기보유를 희망하는 기관 투자자에 의해 주도됐다고 여겨진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두달 안에 12만5000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분쟁으로 하락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70대 인구수, 향후 1년 내 10대 추월한다

행안부, 10대~70대 수 격차 26만명
70대 인구수, 20대 추격도 '시간문제'

향후 1년 내 국내 70대 인구가 10대 인구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60대 인구가 40대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데 이어 또 하나의 역사적 통계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 1980년대, 넘쳐나는 아이들로 인해 오전·오후반으로 나뉘어 등교하던 시절도 있었다. 약 40년이 흘러 이제 10대는 연령대별 인구 순위에서 50대, 60대, 40대, 30대, 20대, 70대에 이어 7위로 처지기 직전이다. 그 뒤로는 9세 이하, 80대, 90대, 100세 이상뿐이다.

14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0대와 70대의 주민등록

주거주민 수 격차는 26만 명까지 줄었다. 각각 462만 명, 436만 명이다.

두 나이의 간격은 1년 전인 2024년 6월 말(57만 명 차=463만-406만)과 비교해 절반 넘게 좁혀졌다. 2년 전인 2023년 6월엔 78만 명 차(467만 대 389만)였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시 10대는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 70대에 따라잡힌다.

또 70대는 향후 20대를 때서운 속도로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기준 20대 인구는 581만 명으로 70대(436만 명)보다 145만 명 많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70대 진입이 시작됐다. 아직 대부분이 60대인 이들은 오는 2033

년 말까지 모두 70대가 된다. 따라서 70대가 20대를 추월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9월 60대는 40대를 제쳤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당시 60대(777만242명)와 40대(776만9028명)의 인구 격차는 1214명이었었다. 이후 9개월이 지난 올해 6월 60대는 784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 40대는 763만 명으로 줄면서 21만 명 차까지 벌어졌다.

국내 총인구는 6월 말 기준 511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는 지난해 말(5121만 명)에 비해 불과 6개월 만에 5만2000여명 감소했다.

또 서울 인구는 정점 대비 100만 명 가량 줄어든 932만 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만 대학과 오가노이드 협력기반 다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만서 아시아 약학 컨퍼런스 참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아시아 주요 거점 대학들과 협력기반을 다졌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7월6~9일 대만 국립양명교통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약학 컨퍼런스(AsiaPharm VI)'에 참가해, 오가노이드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며 약학계의 아시아 주요 거점 대학과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 약학 컨퍼런스는 아시아 내 제약 및 생명과학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대표적 컨퍼런스로, 2016년 베트남 톤독탕 대학교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교, 말레이시아 MARA 공과대학교 등을 거쳐 올해 6회째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대만의 국립양명교통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베트남 톤독탕 대학교 약학부

가 공동 주최로 '제약과학 및 중개 의학 분야의 발전과 성과' 중심으로 열렸다.

중점 분야로는 제약 생명공학, 중개 의학, 신경약리학, 천연화합물 기반 제약, 국제 교육협력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젊은 과학자 및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기술 발표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오가노이드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정밀 의료와 신약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한 약물 반응 예측, 독성 검증, 질환 특이적 스크리닝 기술 등 제약산업 내 오가노이드 응용의 실제 사례와 미래 가능성을 소개했다. 발표 이후에는 아시아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공동 연구 및 인재 교류 협력 논의도 이어졌다. /이세경 기자 seilee@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예방사례 소개

>> 1면 '모르면 당한다...'서 계속

디지털문해력이 높은 20~50대에서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했다. 로맨스 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후, 친분이나 애정을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이다. 피해자에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초반에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 사기를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잦다.

로맨스스캠은 통상 외국인을 자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잦은 연락으로 친분을 쌓은 후 투자 정보나 데이터 비용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고, 이후 세금이나 환전 수수료 등을 이유로 반복해서 금전을 요구한다. 낯선 외국인이 SNS나 메신저로 먼저 연락하는 경

우,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소상공인도 신종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됐다. 유명인이나 공공기관 등을 빙자해 예약이나 발주를 진행한 뒤, 고가 상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노쇼 사기'다. 식당·주점 등에 대규모 예약을 진행하고, 추후에 함께 결제하겠다고며 수십~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 주류나 선물세트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유형이 가장 흔하다.

식당 뿐만 아니라 대학교, 병원,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인터넷·전자제품 판매업체 등에 대규모 사업을 제안한 뒤, 리베이트, 검수비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위조된 계약서나 공문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 주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단체나 기관에 재차 확인을 거

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습'하면 피해 예방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져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지킴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피해 사례 공개 시에는 실제 적발된 보이스피싱 발생 시의 통화 내용도 함께 공개해 보이스피싱 수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대화형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시뮬레이션도 등장했다. AI기업 씽크풀이 산자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하마터면'은 음성, 문자, 영상 등 요소를 활용해 피해자의 시점에서 신종 보이스피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변동성 시나리오를 제공해 반복 학습 시에도 보이스피싱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개발에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상명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 기관이 다수 참여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농축산물 40% 할인... 장바구니 부담 완화

농식품부, 17일부터 3주간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1만2000여 곳에서 열린다. 특히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이 실시되며, 정부지원+자체할인으로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축산물의 경우 이달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한

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번 행사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할인 한도를 1주일에 1인당 2만 원으로 정했다.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 받을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美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

구리 50% 등 관세폭탄 ‘짜깁’… 산업계, 수출 경쟁력 비상

구리제품 전반 고율 관세 적용
배터리·전선업계 타격 불가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동박 제품.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구리를 대거 사용하는 배터리·전선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은 구리 가격 상승이 완제품 가격에 본격 반영되진 않았으나 관세 적용과 시세 추이에 따라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구리 제품 전반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제 구리는 물론 구리를 활용해 제조한 산업용 중간재와 반제품 등에도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따른다. 지난해 구리제품 대미 수출액은 5억 7000만달러(약 7800억원) 규모에 달했다. 특히 배터리 및 전선업계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수출 규모만 놓고 보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국내 제조업 구조상 구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

려할 때 원가 상승 압박이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배터리업계는 북미 수출 비중이 높은 동박 등 핵심 소재로 인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북미 지역의 하이엔드 동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제 7·8공장 증설에 나섰으며 스페인 신공장 착공도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북미 완성차 업체와 고연신 동박 제품의 단독 테스트도 진행하는 등 현지 공략에 매진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일정 수준의 비축 물량이 있어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관세 적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선업계 또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LS전선의 미국 전액 출자 자회사 LS그린링크는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약 11만 8000평 규모의 부지를 인수하고 약 1조원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욱이 케이블과 전선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리 선물 가격도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기준 구리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3.12% 폭등한 1만 2526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증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이며 일일 상승률이 1969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리 관세가 앞서 시행된 철강 제품 관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의 상반기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고부가 전력 케이블은 글로벌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향후 미국 시장 확대를 고려하면 관세 부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여한구 “실질적 주고받기 통해 상호 호혜적 결과 창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여 본부장, 시장 개방 불가피 시사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단 할 수 없어”



“실질적인 주고받기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시작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방미 결과와 관련 “7월8일로 예정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25% 관세 유예시한을 넘기면서, 한미 간 협상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며 “이제는 협상 랜덤존(합의지점)을 찾아 실질적인 ‘주고받기’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요청에 한국은 대미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할 유일한 국가”라며 “결국 한국이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수록,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무역적자의 구조적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문제는 미국의 계산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인 무역적자 해소 효과를 중시하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즉각적인 수입 확대 카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특정 농산물 수입 확대는 정치적 파급력과 산업적 민감도가 큰 만큼, 협상에서 주요 난제로 꼽힌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그러나 당장 협의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여 본부장은 “알래스카 LNG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결정이 이뤄진 상태가 아니다”며 “지금 시점에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정학 리스크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전략적 의미는 잘 인식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은 어느나라도 고스톱지 않은 협상은 없다”며 “우리가 지금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부연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까지 패키지 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8월 1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도, 최상의 시나리오도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남은 기간 한 차례 이상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

획이다. 그는 “국내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하고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 트(권한)를 받는 과정은 미국과의 협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비관세 장벽 철폐와 관련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회 등과 최대한 협의를 해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의 추가적인 대미투자도 이번 관세협상에서 주요 우리측 카드가 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기업들도 오랜 기간 어떻게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업종별, 기업별 방안을 모색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앞서 나가지만, 양국 정부가 규제 완화나 지원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양국 정부가 어떻게 기업 부분들을 서포트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상의 “韓 경제, 규제로 저상장 지속… 메가 샌드박스 도입해야”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 필요성 제기

한국 경제가 규제로 인해 지난 20년간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어 메가 샌드박스 같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승현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큰 산 넘어야 하는데, 낡은 저물고(지난 20년 저성장) 큰 바위(규제)가 가로막은 형국”이라며 “간관 기업들의 부진뿐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본·인력·혁신도 지지부진하고, 서비스업, 자영업, 중소기업도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한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가장 큰 걸림돌을 먼저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수백 가지 규제를 하나씩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규제, 노동 규제, 벤처투자 규제처럼 기업 하려는 의지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나

특구에서 나아가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를 선(先) 테스트하고 실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특정 구역 내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구개발(R&D) 특구에 탄력적 근무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외 ▲AI 규제 지도로 소극 행정 완화 ▲규제 유지 당위성을 공무원이 입증 ▲범부처 규제 개선 ▲의원 입법 규제 영향 평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해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와 AI 샌드



14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과 김태년 국회의원(왼쪽 여섯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박스의 도입을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전 주기적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고, 민간 인증과 학계 평가를 연계한 체계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AI와 같은 첨단 신산업 규제를 설계할 때 단일 법률이 아닌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해 유연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얼마나 완화해야 할지에 대한 실험실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기”라며 “규제혁신이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 출생률 제고 등 선순환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국콜마 유에스에이의 미국 펜실베이니아 제2공장 전경.



오티씨엠 신공장 전경.

/선진뷰티사이언스

“기획부터 생산·품질까지”... 브랜드 주도하는 ‘제조업’

K뷰티 기술로 판 바꾸다

③ 한국콜마·오티씨엠 코스메카코리아 <골>

국내 뷰티 브랜드사의 흥행은 화장품 제조 및 생산 회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브랜드사의 위상이 높아 질수록 제조·생산 회사의 가치도 재평가 받고 있다.

14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는 올해 국내외 모두에서 성장 동력을 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법인 매출은 2743억원, 영업이익은 339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49% 증가했다. 영업익률은 12.4% 수준이다.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익률 모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고객사의 K뷰티 수출 물량 증가가 호실적에 주요했다. 특히 1분기 국내 매출에서 선케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달했다. 해당 제품군이 2분기를 비롯해 성수기를 맞는 경우, 한국콜마는

주요 브랜드 고객사의 주문이 늘면서 수익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콜마는 올해 1분기, 미국에서도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국내 생산기지, 수요 대응 전면에 할랄 인증 확보, 무슬림 시장 공략 ODM 산업, 브랜드 대신 앞세워져

선진뷰티, FDA 맞춤 공장 장항에 준공 가능성 화장품 중심 수출 확대 가시화

미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1% 급증해 217억원이다. 영업이익은 15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25억원에서 흑자 전환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제1공장은 단독으로 3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와 함께 한국콜마는 펜실베이니아의 제2공장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고객사의 생산 견적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미

국 현지 생산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고객사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주요 고객사는 북미 소재 파트너사들로 향후 중남미 시장으로 파트너십을 넓힐 계획이다.

화장품 원료 전문 기업인 선진뷰티사이언스도 미국 화장품 시장을 정조준하며 국내에 글로벌 생산 시설을 마련했다.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지난 1일 충남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서 신공장 ‘오티씨엠’과 신규 사업부를 공개했다. 오티씨엠은 국내 최초 일반의약품(OTC) 화장품 전용 시설이며, 새롭게 출범한 사업부는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및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사업을 맡는다.

오티씨엠은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OTC 생산 기준에 따라 설계됐다. 미국은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해 자외선 차단 지수가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에 일반의약품(OTC)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한다.

미국 FDA에 OTC 제조사로 정식 등록된 오티씨엠은 선진뷰티사이언스가

구축한 독자 소재를 활용해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메이크업 제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규모는 월 210만 개의 정품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다.

코스메카코리아, 코스피 이전 추진 美·中·인니 거점 구축, 수출 다변화

한국콜마, 1분기 영업익 49% 급증 선케어 수출 덕에 분기 최대 실적 美 공장 흑자 전환, 북미 수주 본격화

선진뷰티사이언스 측은 “이번 신공장 준공 전부터 이미 전 세계 각지에서 수주가 발생했고, 미국 규제 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시설과 역량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올해 들어 기업 외형 확장에 속도를 낸다.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이전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청구서를 접수했고, 이는 2016년 코스닥 상장 후 8년 만의 행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코스피 이전상장을 통해 국내의 시장에서 기업 영향력과 인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 생산과 연구개발을 이뤄내고 있어 글로벌 화장품 ODM 사업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가능성을 갖췄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코스메카코리아는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잉글우드랩을 미국 자회사로 두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현지법인인 코스메카차이나 등을 운영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 인증 기관인 ‘무이’에서 할랄 인증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다각화해 왔다.

아울러 코스메카코리아는 올해부터 중장기 경영 계획으로 1조원 매출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 연간 실적을 경신하기도 했다. 2024년 매출은 5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04억원, 537억원이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22.8%, 당기순이익 58.6% 커졌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CJ올리브영, K뷰티 수출길 넓혔다... 온오프라인 유통망 강화

상반기 글로벌물 매출 70% ↑ 美 비중 절반, 英 300% 급증 입점 브랜드 1200개로 확대

CJ올리브영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테네시주 맵피스 페덱스 월드 허브에서 글로벌 특송 기업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퍼레이션(페덱스)와 ‘한·미 특송 및 미국 내 물류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K뷰티 물류를 전 세계 유통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협력한다. 올리브영은 현재 해외 여러 나라에서 K뷰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적극 반영해 향후 미국 외 국가별 현지 물류 체계를 강화한다



미국인 탄비(오른쪽)씨와 라셀(왼쪽)씨가 서울 명동에 위치한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에서 글로벌물 가입 자판기에서 신규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CJ올리브영

는 방침이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올리브영 글로벌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물 주문 건수는 60%가량 늘었다. 회원수는 335만 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300만

명대에 진입했다. ‘올리브영 글로벌물’은 올리브영이 자체 구축한 온라인 채널로, 최신 K뷰티를 비롯해 K팝, 웰니스 등 1만 종 이상의 상품을 취급한다. 특히 미국 매출이 올리브영 글로벌물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다. 또 올해 상반기 국가별 매출 증가폭을 살펴보면, 영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0% 이상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180% 커졌다. 동남아 권역에서는 말레이시아 256%, 싱가포르 191%, 필리핀 138% 등으로 매출 성장세가 이어졌다.

올리브영은 올리브영 글로벌물이 K뷰티 대표 역직구 창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리브영 글로벌물이 국내 중소·인디 브랜드와 해외 K뷰티 소비자들 중간에서 점점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리브영은 일본 3900엔, 미국 등 그 외 지역 60달러 등 낮은 무료 배송 기준을 유지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 안드로이드, 애플 등 여러 운영체제에서 주요 메신저

‘라인’을 통한 간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올리브영 글로벌물 접근성과 편의성도 고도화한다.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국내 주요 올리브영 매장에서 글로벌물 가입 자판기도 운영한다.

그 결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K뷰티 브랜드와 올리브영의 파트너십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올리브영 글로벌물 입점 브랜드는 약 1200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9년 초기 130개에서 9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유통 인프라는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매출 성과는 물론, 유망 K뷰티 브랜드가 해외 고객과 적극 소통해 K뷰티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합(合)에서 답(答)을 찾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전술은 완성됩니다.

기존의 에너지는 토대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는 동력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합해
전에 없던 에너지의 답을 내놓습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치열한 與野 신경전... 강선우 청문회 '시작 13분만에' 파행

'인사청문 슈퍼워크' 돌입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차례대로 실시된 가운데, '인사청문 슈퍼워크'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며 후보자·여당 청문위원과 야당 청문위원이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는 14일 오전부터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는 회의 시작 13분 만에 후보자가 선서도 하기 전에 파행됐고,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는 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정회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개인 좌석 앞에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를 가리키는 팻말을 붙이며 항의의 뜻을 드러낸 것을 문제 삼았다. 피켓에는 '갑질왕 강선우 OUT(사퇴)'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회의장 밖에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강요된 사적 지시, 선 넘은 갑질 행동, 우리가 기억한다'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는 잠시 정회됐다가 다시 시작됐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소회를 밝히려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3주간 여가부 업무뿐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왼쪽부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野, 회의장서 팻말 붙이며 항의
與 문제제기로 파행·정회 잇따라

강선우 "보좌진에 심심한 사과"
배경훈, 제4이동사 출범 '공감'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확답 안 해
정동영, 가족 태양광사업 투자 논란

고 입을 뗐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정 활동 기간에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강요했다는 전직 보좌진의 폭로가 나와 구설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바"라며 "제가 부족했던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

아 더 세심하게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서범수국민의힘의원의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냐고 묻자 "한 적도 없고, 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 출신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 좌석 앞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항의하는 의미로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팻말을 붙인 것이 문제가 돼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다. 청문회는 오후 1시에 속개됐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국가재정이 투입된 인프라를 이용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개인 정보 보호와 서비스질 향상 부분에는 정작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추진

해야 한다고 배 후보자에게 물었다. 배 후보자는 "말씀에 공감한다. 시장 환경과 발전 상황들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 후보자의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 의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삼임위에서 농해수위 경험이 전무하다. 전문성을 살려서 문체부 장관을 하지, 해수부 장관을 하려 하나"라고 물었다. 전 후보자는 "질문의 취지는 알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산 지역구 의원이다. 해운, 항만, 물류, 조선, 바다, 수산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세간엔 올해 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를 업적 삼아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는 이야

기가 들고,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 지선 전략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7~8개월 남았다. 8개월 장관 하겠다고 하다가 장관을 버리고 선거에 나가겠다고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전 후보자는 "저는 지금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불출마 선언은 못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하자 전 후보자는 "세상 일은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라고 확답은 하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 가족의 태양광 사업 이해 충돌 논란이 핵심 쟁점이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후보자 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냐고 질의했으나,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조성 특별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제 아내가 소유한 발전 사업과는 다르다. 영농형은 절대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여야 의원 7분이 발의하고 82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제 아내는 중고태양광시설이다. 생존과 생계를 위한 호구지책으로 매입했다. 5년 전 낙산해 낙향했을 때 소득이 제 국민연금 밖에 없어서 고정적인 생활비 확보를 위해 투자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아예 문제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안전" "합리적 금융지원·주택공급 확대 전략 필요"

李 대통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서 5급 예비 사무관 305명 대상 특강 특강 후 구내식당서 함께 점심식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민권선시대 공직자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하면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했다. 특강 대상자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사무관 305명이었다.

이번 특강은 이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예비 공직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 사무관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특강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나는 '부패한 사람'으로 온갖 음해를 당해서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왔다"며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이야기인데, 돈이 마귀다. 이 마귀는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 '고생이 많다'는 문자와 메일을 보내다가 '애쓴다', '존경한다'며 전화를 한다. 그러다 또 나타나서 '어려운데 커피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밥이라도 한 끼, 그러다가 술이라도 한 잔, 골프라도 한 번' (하자며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5급 신입관리자과정 교육생에게 특강을 하기 위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당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며 "상품권도 우연히 생겼으며 10만 원짜리를 한 장(주고) 여유가 생겼으며 20만원, 30만원(을 주고) 그러다가 룬살 룬에 가고, 선물을 잔뜩 갖다주면서 내성이 생겨 나중엔 별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보니 이 사람이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 사람이 잡혔을 때 드러난다"며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부당하게 남들보다 우월한 경쟁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관가 근처에서 노는데, 대개 회계장부를 뒤져보면 엉망진창이고, (이들은) 자신들이 잡힐 때를 대비해 그 장부를 싹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위험한 시기가 되면 그

사람들 태도가 돌변한다. 어느 날부터 '우리가 남이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라고 나온다"며 "그 때 이미 코가 꺾어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나"라고 물었다. 이에 관중석에서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예 문제 될 일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업자를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할 일을 안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특강이 끝난 후 이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서예진 기자 syj@

野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출범

국민의힘이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확대, 거래 정상화, 외국인 규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권영진 TF 위원장, 김종양·이종욱·최은석 등 TF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TF는 7~8월에 외국인 부동산 규제 확대, 수도권 안정화 대책 마련, 지방 미분양 사태 대응을 주제로 세 번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사는 반(反)서민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며 "결국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 매수로 자산을 축적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며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권영진 TF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향을 ▲수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화 대책 마련 ▲지방 미분양 사태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과 실수요 기반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권 위원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 지 문제인 정부 시즌2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 마련으로 시장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 맞춤 금융**
- 경영 지원**
-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비은행 확대 외친 농협금융... '보험 실적 반등'이 관건

지배주주 수익 75%가 '은행' 몫
두 보험사 비중은 12% 불과해
손보 손해율 ↑...자본비용 급락
생명은 금리하락에 이익 감소

NH농협금융지주가 중·장기 청사진에서 '비은행 비중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은행이 책임지는 현 구조를 바꾸려면 보험 자회사들의 실적 반등이 비은행 수익성 제고의 성패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지배주주 수익은 7141억원이다. 이 가운데 NH농협은행이 거둔 순이익은 5361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하지만 보험 부문(NH농협생명 651억·NH농협손보 204억)은 855억원으로 비중이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은행 쏠림'을 해소하려면 두 보험사의 실적 반등이 필수 과제다.

NH농협생명은 올 1분기 순이익 6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억원 줄었다.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평가손



NH농협손해보험 사옥

NH농협생명 사옥

/각사

실이 늘면서 이익이 얇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경과조치 후 K-ICS(코스·지급여력비율)은 431.14%로 업계 상위권을 유지했다.

1분기 운용자산이익률은 2.77%,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47%로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실적의 80%가 채권이자·배당 등 안정 운용 수익에서 나와 변동성은 작지만 금리 하락 국면에서도 ALM(자산·부채 관리) 정교화로 마진을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과제로 지적된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금융시장 불안정, 제도변경,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보험산업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지만 보험 본연의 영역에서 나름의 성장동력을 찾을 것"이라며 "자산 리밸런싱 및 자산부채 매칭 정교화 등을 통해 운용 자산수익률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사정이 더 좋지 않다. 올 1분기 순이익이 2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0억원 감소했다. 보험비용이 8309억원으로 1년 새 1245억원 증

가해 손해율이 된 영향이 컸다.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165.72%로 전년 대비 152.35%포인트(p) 급락했다. 기준치인 150%에도 근접해 여유가 많지 않다. 금리 하락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자동차·농작물 등 고손해율 상품 구조 개선과 장기 위험률 재점검이 시급하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보험금·사업비 예산차 관리, 신계약 CSM수익성 증대를 통한 상각이익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1분기 당기순이익 5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하지만 명목 순이자마진(NIM)은 1.75%로 0.25%p 하락, 원화 예대금리차도 1.99%로 0.37%p 축소됐다. 대손상각비가 2322억원으로 838억원 증가해 총당금 부담이 커졌고 고정이자여신비율은 0.56%로 0.17%p 뛰어 잠재 부실경보도 커졌다. 수익 증가는 이자이익 증가 덕분이지만 질적 지표는 악화된 셈이다.

NH농협은행은 총자산순이익률(ROA) 0.51%, 자기자본이익률(ROE) 8.84%로 끝내기 수익성은 두 보험사와

큰 차이가 없지만 구조는 다르다. 은행 이익은 NIM·수수료 수익에 좌우돼 경기 및 금리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반면 보험 ROA는 언더라이팅·투자수익 복합 구조로, 손해율 및 자본규제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NH농협은행의 NIM 추가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 부문의 '안정적 캐시카우' 역할이 더 절실해진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이 비은행 수익성 제고를 중장기 핵심 과제로 꼽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앞서 이찬우 회장은 지난 5월 29일 '농협금융 중장기전략 수립' 컨설팅 착수 보고회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방안으로 "비은행 부문 수익성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 그룹 전체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보험 양사의 실질적인 수익성 회복과 자본효율 제고가 절대 과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NH농협금융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자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면밀히 점검해 회사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 농협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공급 가뭄에 올해 아파트 입주 10년래 최저

전국 집들이 예정 물량 28.7만 가구
광주·부산·세종, 절반 이하 급감
신규 분양 부진 여파 2~3년 지속

공급 가뭄으로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이 줄어든 결과다. 특히 부산과 세종, 광주 등은 입주 물량이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에서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28만7432가구다. 지난 2022년(33만6199가구) 대비 15% 감소했다.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추축하면서 아파트 분양

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올해 입주 가뭄으로 이어졌다.

시·도별로는 광주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4820가구에 불과해 2022년 1만3716가구에서 65%나 급감했다. 부산 역시 1만1418가구로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세종도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1840가구로 2022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경기(-3만9813가구)와 인천(-2만4777가구)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분양물량이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만큼 전국적인 입주 가뭄이 앞으로 2~3년 이상 이어질 것

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와 지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부산의 물량 감소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침체의 영향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곤 하지만 아파트 매매량은 2022년 이후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수요층이 충분히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처럼 수요가 충분한데 새 아파트 입주는 올해부터 수년간 기록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은행 모바일 신분증 제공 가능해진다

민간개방 참여기업 최종 선정
내년 7월부터 원큐지갑서 제공

하나은행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 ▲보안 수준 ▲신뢰성 ▲활성화 계획 ▲장애 대응체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수단이다.

이번 참여기업 선정으로 손님은 하나원큐를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친 뒤 7월부터 하나원큐의 '원큐지갑'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4일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최종 선정으로 손님의 디지털 편의성을 한층 더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나원큐를 통해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디지털 노하우와 안전한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기업은행, 미래전략산업 퓨리오사AI에 100억 투자

'IBK벤처대출' 통해 유동성 공백 해소
기술혁신·창업 생태계 발전 지속 지원

IBK기업은행은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퓨리오사인공지능(AI)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정부의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 발맞춰 첨단 기술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AI반도체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퓨리오사AI는 미국 빅테크기업으로부터의 인수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AI칩 개발 및 양산을



IBK기업은행

추진하며 국내 기술 자립의 상징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은행은 퓨리오사AI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창업초기에 인식하고 창업대출, 모험자본 투자, 기술금융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이어왔다. 특히 금융권 최초의 투융자 복합

상품인 'IBK벤처대출'을 통해 제품 양산계약이전 단계에서의 유동성 공백을 해소하며 성장 발판을 마련해줬다.

이번 퓨리오사AI 투자 유치에는 1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모집됐으며, 기업은행의 전략적 투자는 K-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국내 AI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도약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태 혁신금융그룹 부행장은 "제2, 제3의 퓨리오사AI와 같은 우수한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망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동반자로서 기술 혁신과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115@

추경 7000억 투입... '새출발기금' 대폭 확대

저소득 1억이하 채무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20년 확대... 9월부터 적용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중 7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지원한다. 채무 1억원 미만인 저소득자영업자·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분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올해 6월말 까지 약 13만7000명(22조 1000억원)이 신청했고, 약 8만명(6조

5000억원)의 채무를 조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인 만큼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추경 7000억원을 반영해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다.

감면이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기금과 협약한 금융회사의 대출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초고급휘발유 ‘카젠’으로 극한 레이스 믿고 달릴수 있어”

HD현대오일뱅크

2025 오네 슈퍼레이스 공급사 참여 옥탄가 100 고급휘발유 ‘카젠’ 사용 CJ대한통운 오네팀 스폰서십 계약 엔진오일 등 엑스티어 브랜드 공급



이정우, 오한솔, 김동은(왼쪽부터) 드라이버가 경기 전 각오를 다지고 있다.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공식 연료인 HD현대오일뱅크 카젠이 주유되고 있다. /이승용 기자

HD현대오일뱅크가 고급휘발유와 윤활유 제품을 앞세워 모터스포츠를 통한 ‘기술력 입증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성능 레이스 환경에서 직접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브랜드 신뢰를 심고, 고부가 석유제품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공식 연료·윤활유 공급사로 참여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부터 7년 연속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에 연료를 단독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윤활유까지 후원 품목을 확대했다. 슈퍼레이스는 CJ그룹이 주최하고 세계 자동차연맹(FIA)이 공인하는 국내 대표 대회로,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9라운드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HD현대오일뱅크의 고급휘발유 ‘카젠(KAZEN)’이다. 일반 고급휘발유의 옥탄가가 94 수준인 데 반해, 카젠은 옥탄가 100의 고성능 연료다. 특히, 초고급휘발유인 ‘울트라카젠(ULTRA KAZEN)’은 국내 최고 수준인 옥탄가 102 이상으로, HD현대오일뱅크는 이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국내 유일 정유사다. 실제 울트라카젠은 지난 2021년 출시 이후 지난 2월까지 누적 판매량 20만 배럴을 돌파하며 시장의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윤활유 부문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올해부터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오네 레이싱팀과 공식 케미컬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엔진오일과 트랜스미션 오일, 디퍼런셜 오일까지 전 라인업 제품을 공급한다. 공급되는 제품은 ‘엑스티어(XTeer)’ 브랜드로, 100% 합성 PAO 기반의 ‘XTeer Top PAO 5W-30’ 엔진오일을 비롯해 ‘XTeer GL-5 75W-90’ 변속기오일, ‘XTeer GL-5 85W-140’ 디퍼런셜오일이 포함된다. 2025 오네 슈퍼레이스에 출전 중인 오네 레이싱팀 드라이버들(오한솔, 이정우, 김동은)은 HD현대오일뱅크의 고

급윤활유 XTeer’와 초고급휘발유 ‘카젠’에 대해 “극한의 레이스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믿고 달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기어오일과 디퍼런셜오일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정우 드라이버는 “저희 차량은 시퀀셜 미션을 사용해서 변속을 자주 반복하는데, 이때 윤활유가 제 기능을 못하면 실수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며 “엑스티어는 그런 부분을 잘 버텨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전기차 전용 윤

활유 개발도 병행 중이다. 지난 2023년에는 전기차용 감속기오일 ‘XTeer EV F’를 출시했으며, 전기모터 열 관리와 절연 성능에 초점을 맞춘 신규 제품군을 준비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최적화된 오일 라인업도 확장할 계획이다. 탄소 감축 흐름에 맞춰 친환경 기술력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윤활유 제품에는 재생 원료와 저배출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엔진오일 용기는 폐배터리 분리막을 재활용해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김용완 윤활유신성장팀 팀장은 “레이싱 차량은 고온·고압 환경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윤활유 내구성과 성능이 직접 시험된다”며 “엑스티어 제품은 저온 및 고온에서도 윤활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저속 조기 점화(LSPI) 억제 성능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와 윤활유는 소비자가 일상에서 성능을 직접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성능 레이스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활용해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LG전자 ‘스탠바이미2’ 해외 공략 본격화

이번주 홍콩·튀르키예 시작으로 아시아·북미·유럽 시장 순차출시 국내 라방서 38분 만에 1000대 완판



모델이 LG 스탠바이미 2의 화면부를 분리해 테이블 위에 세워두고 터치로 회의를 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 2’를 북미·유럽·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출시하며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전자는 스탠바이미2를 이번 주 홍콩과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7월 미국, 캐나다,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북미 국가에, 8월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시장에 순차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LG 스탠바이미 2는 지난 2월 국내에 먼저 출시돼 큰 인기를 끌었다. 첫 라이브 방송에서 1000대 초도 물량이 38분 만에 완판됐고, 출시 5개월간 전작 대비 4배 이상 판매됐다. LG전자는 이러한 국내 호조를 바탕으로 해외 전략 시장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스탠바이미2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과 편의성’이다. 고객 의견을 반영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본체 화면을 스탠

드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다. 덕분에 테이블에 세워두거나 벽에 걸어 액자처럼 사용할 수 있다. 27형 QHD(2560x1440) 터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화질도 강화됐고, 최대 4시간 사용 가능한 고용량 배터리로 전원 연결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TV 플랫폼인 웹OS(webOS)를 탑재해 OTT 콘텐츠와 클

라우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화면을 세로로 돌려 웹툰이나 숏폼 영상도 감상 가능하다.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를 모두 지원해 몰입도 높은 시청 경험을 제공하며, 디자인 역시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 글로벌 디자인 상을 수상하며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이혜민 기자 hyem@

“韓, 마이바흐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시장”

‘마이바흐’ 서울 압구정 상륙



전 세계에서 하나 뿐인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이 14일 개관했다. /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상위 브랜드인 마이바흐가 서울 압구정에 세계 최초 고객 전용 전시장을 만들었다. 메르세데스-벤츠 경영진은 한국 시장을 마이바흐 브랜드의 핵심 거점으로 지목하면서 이번 전용관 개실이 글로벌 전략의 상징적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자리한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오픈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초 마이바흐 전용 고객 터치 포인트가 한국에 생겼다는 것은 한국 시장이 그만큼 마이바흐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인 시장이란 것을 방증한다”며 “이곳은 마이바흐를 변함없는 열정으로 맞이해준 한국 고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4년 한국 출시 이후 1만명 이상의 고객이 마이바흐를 선택했고 이는 한국이 글로벌 마이바흐 글로벌 시장의 핵심임을 보여준다”며 “이번 전용관은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건물 외관은 한복의 주름과 한옥의 처마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을 디자인으로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마티아스 가이젠 벤츠 그룹 AG 이사회 멤버는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의 오픈은 최고 수준의 고객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는 중대한 진전”이라며 “한국은 단순한 주요 시장이 아니라, 현대적 럭셔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이를 진화시키는 나라”라고 말했다.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은 벤츠의 럭셔리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그룹 차원의 틈엔드를 선도하는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 “한국에 세계 첫 고객전용 전시장 건물, 한복 주름·한옥 처마 영감” 1층에 차량전시·고객 라운지 마련 2층 인도 공간, 3층에 상담 공간

브랜드센터는 총 연면적 2795㎡,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 층으로 구성된 독립형 건물이다. 1층은 차량 전시 및 고객 라운지, 2층은 차량 인도 전용 공간, 3층은 프라이빗 상담 공간과 맞춤형 차량 제작을 위한 마누팩투어 스튜디오, 지하 1층은 워크베이 5개를 갖춘 전용 정비센터로 운영된다. 방문은 예약제로 이뤄지며, 전담 세일즈 컨설턴트와 제품 전문가가 1:1 맞춤 응대를 제공한다.

딜러사인 노재봉 HS효성더클래스 대표이사는 “방문부터 퇴장까지 고객 한 명에게 전담 직원을 배정해 세심한 응대를 진행한다”며 “이번 브랜드센터 설립을 위해 3년간 약 470억 원을 투자했고, 연간 50억 원 규모의 운영 예산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벤츠 딜러사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한 만큼 최고의 전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S전선, 고내구성 USB 케이블 출시

100만 회 구부림에도 성능저하 없어 LS전선이 산업현장의 까다로운 요구에 맞춘 고내구성 USB 케이블을 선보였다. LS전선은 반복적인 움직임에도 견딜 수 있는 고유연성의 산업용 USB 케이블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제품은 고속 데이터 전송 기능과

함께 100만 회 이상의 반복 구부림에도 단선이나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하는 높은 내구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 독일, 대만 등 해외 수입 제품이 30만~40만 회 수준에서 단선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수명이 길어졌다. 산업 자동화 확산과 함께 고신뢰 통신이 필요한 공정 장비용 케이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제품은 국산

화와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생산라인과 같은 자동화 설비를 비롯해 IP 카메라, CCTV, IoT 장비 등 반복 동작이 많은 설비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이 제품은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국제 인증을 받았다. 또한 내구성뿐만 아니라 접속력, 절연 및 접촉 저항, 충격, 진동 등 10여 개 항목에서 국제 기준을 충족해 품질 신뢰성을 확보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솔그룹, CCUS 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실현 박차

CO₂ 포집 파일럿 설비 시운전
ISO 인증 등 실질적 성과 창출
“환경경영 체계 고도화 추진”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솔그룹이 친환경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한솔제지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 개발·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 ‘넷 제로(Net-Zero) 탄소중립 로드맵’을 차레로 실천해나가고 있다.

특히 한솔그룹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감축의 핵심인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14일 한솔그룹의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한솔제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은 프로테고, 테라바스, 듀라클이 있다.

‘프로테고(Protego)’는 수분과 산소 차단 성능을 갖춘 고차단성 종이연포장



한솔그룹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솔그룹

소재로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복합재를 대체하는 소재로, 포장 및 냉음료 파우치 등 40여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테라바스(Terravas)는 폴리에틸렌(PE) 코팅 대신 한솔제지가 자체 개발한 재활용률 90% 이상의 수용성 코팅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종이 용기다.

2022년 당시 20.1% 수준이었던 친환경 제품 매출 비중은 지난해엔 23.5%까

지 늘었다. 이들 제품은 친환경 인증인 ▲환경표지 인증 ▲GR 인증 ▲UL 2485 ▲UL ECV 2485를 받기도 했다.

한솔제지는 중앙연구소를 통해 사업 부문별 친환경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한솔제지는 CCUS 기술 개발을 목표로 대전공장 소각로에 국내 제지회사에선 처음으로 CO₂ 포집 파일럿 설

비 설치 및 시운전을 진행한 바 있다. 한솔제지는 ‘푸른 지구 실현으로 세계적인 환경기업 달성’이라는 녹색경영 비전도 수립했다.

건자재 계열사인 한솔홈데코는 세계 최초로 100% 재생 원료만을 사용한 MDF 제품 ‘한솔 리사이클 MDF’를 출시했다. 한솔홈데코는 친환경 제품 매출 비중이 2022년 당시 29.8%에서 지난해엔 38.1%까지 늘어났다.

산업용 테이프 전문 계열사로 국내 영업용 램 시장 1위인 테이팩스 역시 환경 친화적인 식품포장용 램을 개발하는 등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한솔제지는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원가경쟁력 향상과 전력·스팀과 같은 자체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고, 이후 친환경 연료 및 전력 사용, CCUS 등 탄소 감축 신기술 사업 개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한솔홈데코는 2030년까지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해당하는 약 3만t을 감축하고, 2040년까지 약 8만1000t을 추가 감축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계열사인 한솔아이윈즈도 친환경공정개선 건설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설정·수립했다.

지난해 12월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한솔테크닉스는 에너지 사용량 최적화, 비용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솔홀딩스 이명길 대표는 “한솔은 전 그룹 계열사에서 국제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기반으로 ‘친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해 실천해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제조 계열사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환경경영 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 성과보상공제 가입자 혜택 강화

교육·복지 서비스 통합신청 접수
강석진 이사장 “프로그램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성과보상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통합신청 접수를 지난 9일부터 시작했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성과보상공제는 ‘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우대저축공제’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기존의 개별 접수 방식의 교육·복지사업을 하나의 통합신청 체계로 개편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입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접수를 통해 총 705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영어캠프, 독서통신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바우처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초등학생 자녀(3~6학년)를 위한 원어민 영어캠프가 중소기업(안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산경남(진해)·호남(광주)·대구경북(경산) 등 전국 4개 연수원에서 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동시에 열린다.

또한 ‘밀리의 서재’ 또는 ‘윌라’ 등 디지털 독서 콘텐츠를 3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독서통신교육과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이러닝 플랫폼(SSUP)’을 통해 약 1000개 이상의 직무·자격 관련 온라인 교육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도 지원한다.

복지 분야는 여름 휴가비 쿠폰 지원, 농어촌 마을 체험휴양 무료제공, 온라

인 복지물 할인혜택으로 구성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제휴해 최대 20만 원까지 휴가비 쿠폰을 지원하고 있다. 쿠폰은 전국 주요 숙박·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 및 재직자우대저축공제 가입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진 이사장은 “교육·복지 서비스는 성과보상공제 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높이고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과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공제 가입자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키우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누적 8만1615개사, 16만9384명의 재직자를 지원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SK스피드메이트, 공임 견적 표준화 선도

차량공임 견적 경진대회 개최

SK스피드메이트가 현대하이카손해사정과 함께 허클베리프로의 수입차 견적 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공임 견적 표준화와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에 나선다.

SK스피드메이트는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현대하이카손해사정, 수입차 공식 딜러사 및 협력 공업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클베리프로의 수입차 견적 시스템을 활용한 차량 공임 견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대회에서는 문제로 출제된 차량 사고에 대한 수리 견적을 얼마나 정확히 산출하느냐를 심사했으며, 독일 자동차 데이터 기업 DAT의 시스템 사용 심화 교육 및 참가자 대상 인증서 지급도 이뤄졌다.

이번 경진대회에 사용된 허클베리프로의 수입차 견적 시스템은 SK스피드메이트가 독일 자동차 데이터 전문업체 DAT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정확한 수입차 부품 데이터를 제공해 견적의 완결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SK스피드메이트는 수입차 통합 관리 플랫폼인 허클베리프로를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등 보험사들이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고를 처리하고,



(왼쪽부터)안무인 SK스피드메이트 대표, 이재열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대표가 지난 11일 SK스피드메이트가 개최한 수입차 공임 견적 경진대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스피드메이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입차 부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무인 SK스피드메이트 대표는 “업계 관계자들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허클베리프로의 수입차 견적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견적 산정 기술을 익히고 시스템 개선점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진대회의 의미가 크다”며 “수입차 부품 유통 선도 기업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임 견적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RE100 기업, 무탄소전력 부족할 것… 제도적 뒷받침 필요”

환경협 ‘PPA 활성화 과제’ 보고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들의 평균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42년에도 국내 4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 21.4테라와트시(TWh)의 무탄소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전력구매계약제도(PPA)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했다. 보고서는 4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반도체·데이터센터·석유화학·철강)의 전력 수요를 무

탄소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올해 5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2038년 4대 산업의 무탄소 전력 충당률은 8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탄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모든 산업으로 확장될 경우 충당률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한경협은 ‘전력구매계약제도 활성화’를 무탄소 전력 초과 수요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력구매계약은 기업과 발전 사업자가 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구매시 지불하

는 전력거래대금 중 망이용료, 전력기반금 등 부대비용을 한시 면제 또는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비주기적으로 공고되는 전력배출계수의 공개 주기를 최소 연단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주력산업은 경영위기와 함께 무탄소전력 사용 요구에 직면하는 등 이 중고를 겪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무탄소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코웨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동참

코웨이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동참한다.

14일 코웨이에 따르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대상인 자사 제품은 ▲노블 제습기(AD-1221E) ▲인버터 제습기 23L(AD-2325C) ▲듀얼클린 제습기(AD-1023A) ▲노블제습기(AD-1025E) ▲라트르

파워공기청정기(AP-3018B) ▲파워업 공기청정기(AP-3522F) ▲파워업 공기청정기2(AP-3525I)다.

대상 제품 중 제습 관련 제품군은 환급 외에도 8월 말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을 활용해 신규 렌탈 시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반값에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통신3사, AI 스타트업 육성 통해 미래먹거리 선점 모색

LG U+ 50억 규모 전용 펀드 조성 프로그램 '쉬프트' 1기 통해 선발

SKT 공모로 선발된 15개 팀과 AI 관련 스타트업 성장 가속화

KT '퓨처 웨이브 테크 데이' 열고 스타트업과 기술·사업협력 과제 공유



지난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 스타트업 랩에서 열린 SK텔레콤의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3기 발대식 현장의 모습. /SKT

통신3사가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의 지원을 통해 기술 우군 확보에 나섰다.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과 '스타트업 육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미래기술 및 먹거리 선점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3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유망 AI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딥테크 전문 액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함께 5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페어리·르몽·테크노매트릭스·에임인텔리전스 등 4개 유망 AI 스타트업으로, 이들은 LG유플러스의 AI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쉬프트(shift)' 1기를 통해 선발됐다.

'쉬프트'는 유망 초기 AI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술 협력과 투자를 지원하고, AI 생태계 혁신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이다. LG유플러스는 단순 재무 투자에 그치지 않고, 내부 조직이 직접 실증(PoC)부터 기술 연계, 사업화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밀착형 협업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이달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 스타트업 랩에서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3기 발대식을 열었다. 지난 5월까지 공모를 통해 선발된 15개 팀

이 참여하며, AI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6개월 간 ▲AI 특화 멘토링 및 세미나 ▲SK텔레콤과의 사업 협력 기회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의 멘토링 및 투자 검토 ▲데모데이 및 외부 IR 행사 참여 등의 지원을 받는다.

KT도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 KT 트랙에 선발된 스타트업들과 함께 'KT 퓨처 웨이브 테크 데이'를 열고, 기술 및 사업 협력 과제를 공유했다.

'창업 도약 패키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업과 공동 협업 과제를 구성하고, 기술 검증부터 서비스 출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KT 외에도 중기부, 창진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두왓·제노드·모놀리·에스에스엘·올가나이즈코리아·맥케이·에이아이포켓·뉴런즈·데이터메타카·

리티브·커넥트브릭·일루니·에드테일러 등 13개 기업이 참여해 기술을 소개하고, KT와의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의 스타트업 육성 투자가 이어지는 이유는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근 각 사가 강조하는 'AI 전환(AX)' 속도전을 고려할 때, 외부 기술 수혈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은 '혁신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ESG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M&A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PoC(개념검증)를 명분으로 협업을 시작하고, 가능성이 확인되면 지분 투자나 인수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투자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네이티브 서비스, 수익화 핵심전략”

SPRi 'SW 중심사회' 보고서

SW기업에 새 수익 모델 개발 제안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신규 시장 창출과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AI 네이티브(인공지능 중심) 서비스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4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최근 발간한 'SW 중심사회' 보고서에서 "AI 네이티브 서비스는 기존 SW 서비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중심 서비스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수익화의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AI 네이티브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능이 핵심적인 요소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기반 ▲지속적 학습 ▲적응성 및 자율성 ▲자연어 처리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 학습·추론하고, 패턴과 통찰을 도출한다. 데이터 업데이트와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업무를 처리해 사람의 지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해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이 간소화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SW 기업이 AI 네이티브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AI가 비즈니스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새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보고서는 인공지능 중심 서비스의 원료에 해당하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당장 수익화가 어렵더

라도 데이터 조달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집 가능한 공공 데이터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 AI 중심 아키텍처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SAP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에서 클라우드·AI 서비스 기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냈다.

버티컬(산업 특화) 솔루션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미국의 방산 AI 기업 팔란티어는 미군과 미 정부,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시각화하는 플랫폼으로 빈 라덴 은식처를 추적하거나 멕시코 마약 조직 위치를 파악하는 등의 성과로 주목받았다. /김현정 기자 hjk1@

KT, '나라사랑 카드 발급' 플랫폼 구축

군인공제회C&C와 맞손

KT가 군인공제회C&C와 '국방 나라사랑카드 발급 및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국방 나라사랑 카드 발급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라사랑카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방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KT는 ▲생체인증 기반의 무인 셀프 등록시스템 ▲스마트 발급관리 플랫폼 ▲보안 체계 강화된 업무지원 시스템 ▲이용자 접근성·편의성 제고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나라사랑카드의 신청부터 발급, 이력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간소화하고 병무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특히 이번에 구축될 시스템은 병무청 내 안전·지문 기반 생체인증, AI를 활용한 실시간 신원 확인 및 병역 회피 방



KT와 군인공제회C&C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는 모습. /KT

지 기능,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인프라 확장성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금융사와 병무청이 시스템을 연계해 병역의무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차세대 나라사랑 카드발급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그동안 차세대 지능형 SDDC(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기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방 분야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도 안정적으로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KB 두 달간 출동비 면제

SK브로드밴드가 앞으로 두 달 동안 IPTV, 케이블TV 출동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초고속 인터넷, B tv 설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는 신규 및 장기 고객 대상으로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365설치'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SK브로드밴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함께(하)고 행복(하)세요'란 프로모션을 이달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장기 고객을 위한 감사 혜택도 마련됐다. 3년 약정으로 구형 셋톱박스를 5년 이상 사용한 고객이스마트3, 스마트3미니, AI4비전, AIS피커형 등 최신 셋톱박스로 교체 신청을 하면, 셋톱박스 임대료가 이용 기간 동안 매일 4400원 할인된다. /김현정 기자

LG U+, 폭염에 현장직원 안전지원책 마련

음료 구입비 지원·휴식시간 마련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폭염이 가장 심한 낮 시간대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음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30분의 휴식 시간을 마련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폭염 작업 시 부여되는 기본 휴게 시간과는 별도로 휴식과 수분 보충을 지원해 직원들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폭염단계 중 '관심단계' 이상 발효 시 현장 직원에게 지역별 폭염 특보를 반영한 문자 메시지(MMS)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LG유플러스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현장 근무 중 식수를 마시는 LG유플러스 직원의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물품도 배포했다. 체온 관리에 효과적인 냉감 넥스카프·쿨토시와 함께, 식수, 이온음료, 식염 포도당을 지급했다. 작업 대기 시에는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차량용 냉장고를 지원해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맵, 이용자 정보제보형 서비스 오픈

제보리워드 오픈기념 행사

카카오의 지도 앱(APP) 카카오맵이 14일 이용자 참여 기반의 정보 제보형 서비스 '제보리워드'를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27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보리워드는 음식점 영업시간이나 메뉴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제보하고, 해당 정보가 승인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특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 쇼핑포인트를 지급받는 참여형 서비스다. '음식점' 카테고리의 영업시간과 메뉴를 제보할 수 있고, 한 장소당 최대 4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쇼핑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카카오맵 특별혜 추가가 필요하다.

이용자는 카카오맵 앱 상단에 위치한 '제보포인트' 버튼을 누른 뒤 후보 장소를 선택해 수정이 필요한 영업시간 또는 메뉴 정보를 제안하면 된다. 지도에 등록되지 않은 음식점의 경우, 해당 위치를 길게 누르면 나타나는 '신규장소' 제보에서 음식점 등록을 제안할 수 있다. 제보리워드는 카카오맵 앱을 최신(버전 6.4.0)으로 업데이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 기간 동안 최초 승인된 제보 1건에 한 해 1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보너스 쇼핑포인트는 기본 리워드와 별도로 순차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가만 있다 벼락거지 될라”... 주식시장 ‘앵그리 머니’ 몰려

코스피 급등에 투자자 증가
공매도 순보유 잔고 9조 돌파
“과열 조심... 리스크 관리 필요”

“예금이자만 쥐꼬리만 한데 코스피 지수는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내 집 없는 사람이 돈 벌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요.”

지난 11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NH투자증권 지점 입구에서 만난 주부 김모(36) 씨 얘기다. 김 씨는 “주식 초보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사는 게 금리가 2%대인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낫겠다 싶어 새로 증권 계좌를 열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김 씨 외에도 계좌를 열기 위해 찾은 고객들로 증권사 지점 안은 북적였다. 인근 B증권 강남대로센터 관계자는 “증시가 3000선을 넘어서며 활황세를 띠자 직장인들과 현금 자산이 많은 고령의 고객 방문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김씨 같은 투자자들이 늘면서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3% 상승한 3202.03에 마감했다. 낮 놓고 있다가 ‘벼락거지(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산 격차가 벌어진 사람)’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조바심이 서민·중산층과 청년층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0.83% 오른 3202.03 마감한 1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니터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기록한 3202.03은 종가 기준 연중 최고다. /뉴시스

사이에 확산하면서 ‘앵그리 머니’가 주식 시장으로 쏟아졌다는 게 시장 평가다. 증시 상승장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포모(FOMO) 증후군’도 증시로의 자금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을 사기 위해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1일 기준 66조 3692억원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조원이 넘는 뭉치돈이 들어온 영향이 크다. 같은 기간 개인이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빌린 돈(신용융자)은 2

조 9207억원 늘어나 전체 잔고는 21조 2670억원이다. 사실상 개인이 즉시 증시에 투입할 수 있는 실탄(투자예탁금+신용융자)만 90조원에 달한다.

또 6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잔액은 39조 467억 원으로 한 달 새 약 4687억 원 늘었다. 이들 자금도 유사시에 증시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돈으로 추정된다.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견조한 흐름이 이

어지고 있지만 투자자에탁금, 신용융자 잔고 등이 빠르게 급증하는 등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만큼 부담도 존재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강세 전망이 유효하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높아 선별적인 접근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한 경제 전문가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고평가된 데다 실물 경기와 괴리가 커지면서 급격히 조정방향을 위협도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 7월들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액은 하루평균 90억원에 달했다. 올해 하루 평균 59억원보다 31억원 가량 많다. 반대매매는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투자 심리 위축과 시장 급락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공매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9조 445억원이다. 코스닥 공매도 역시 3조 9287억원으로 4조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매도 순보유잔고 증가는 증시 하락에 베틀하는 투자자가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신호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초반부터 관세 불확실성에 직면하겠지만, 단기 변동성만 유발할 뿐 지수 추세를 훼손시킬 정도의 과급력은 제한적인 것”이라면서도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매판매 등 관세가 실제 여파를 가늠할 수 있는 하드 데이터가 주중 대기하고 있는데, 6월 CPI가 쇼크를 기록할 시에 증시 단기 조정으로의 부정적 피드백 루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신한 기자 godhe@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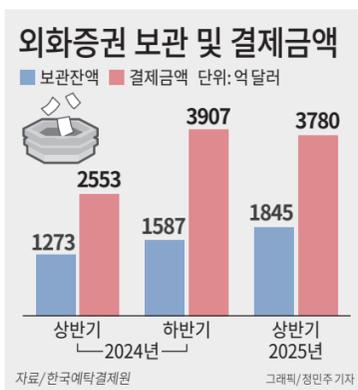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금액 ‘사상 최대’

1844.5억弗... 지난해 말 대비 16% ↑
테슬라 등 美 주식 쏠림현상 두드러져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자산 투자 선호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관금액 상위 종목은 모두 미국 주식이 차지했으며, 특히 테슬라의 비중이 가장 컸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844억 5000만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16.2% 증가했다. 외화주식 보관금액은 1360억 3000만달러로 전년 말보다 11.9% 늘었고, 외화채권은 484억 2000만달러로 30.3%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8.7%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미국을 포함한 유로시장, 일본, 홍콩, 중국 등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보관금액의 98.8%를 차지했다. 특히 외화주식의



경우 미국이 전체 보관규모의 92.5%를 차지하는 등 미국 시장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 종목은 모두 미국 주식이었다. 테슬라가 212억 9400만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엔비디아(135억 400만달러), 팔란티어(45억 9500만달러), 애플(42억 21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33억 8400만달

러)가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의 결제금액은 3779억 9000만달러로 직전 반기보다 3.2% 감소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3086억 3000만달러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0% 줄었지만, 외화채권 결제금액은 693억 6000만달러로 5.6% 증가했다.

결제 시장별 비중에서도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82.3%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미국을 포함한 유로시장, 홍콩, 일본, 중국 등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결제금액의 99.7%를 차지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주식이 95.7%의 비중을 기록했다. 결제금액 상위 종목은 테슬라가 1위를 차지했으며 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 TSLA(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 등이 뒤를 이었다. /원관희 기자 wkh@

이차전지 ETF, 가격 메리트... 수익률 급등

구조적 리스크 여전... 투자 주의해야

이차전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부진에서 탈출하고 있다.

14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ETF 수익률 1위는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로 35.45% 급등했으며,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도 29.74% 상승하는 등 강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TIGER 2차전지TOP10’ (16.90%), ‘SOL 2차전지소부장Fn’ (16.36%), ‘TIGER 2차전지테마’ (16.29%) 등 주요 2차전지 테마 ETF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가격 메리트를 노린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연기금도 이차전지를 투자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연기금은 이달들어 LG화학과 POSCO홀딩스를 각각 871억원,

841억원어치 사들였다. LG에너지솔루션도 36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그러나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 지원의 불확실성,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 둔화 등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단기 반등이 나타났어도 산업의 중장기 체력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6년 전후로 2차전지 섹터는 산업 구조 재편과 주요 고객사 확대가 맞물리면서 공급 공백 해소, 정책 불확실성 완화, 3분기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긍정적인 추가 흐름이 기대되지만 유럽 내 가동률 개선이 제한적이고 북미 전기차(EV)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등 밸류체인(가치사슬)별 실적 변동성으로 다른 섹터 대비 매력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운용, 타겟커버드콜 ETF 2종 순자산 1조 돌파

KODEX 200·금융고배당TOP10

삼성자산운용의 대표적인 타겟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순자산이 합산 1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순자산이 727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상장 이후 7개월여 만에 7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ETF는 코스피200에 투자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 배당과 코스피

200 지수의 위클리 콜옵션을 매도해 연 17%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장 이후 꾸준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개인순매수가 445억원을 기록해 하루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 43개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올 들어 누적 개인 순매수는 4945억원을 기록, 커버드콜 ETF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순자산 3601억원을 기록하며 순자산 3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ETF는 국내 대표 금융사에 투자해 금융주의 주가 상승에 참여가 가능하면서도 타겟 커버드콜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은행, 증권 등 금융주가 최대 성과를 기록한 가운데 주가 상승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어 인기몰이 중이다. /원관희 기자

삼성증권, ‘퇴직연금 ETF 모으기’ 서비스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ETF 모으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퇴직연금 ETF 모으기’는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정기적으로 자동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서 매일·매주·매달 특정일에 원하는 금액·수량만큼 주식을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투자자들이 국내ETF와 리츠를 이용해 은퇴자산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증권은 서비스오픈을 기념해 가입 고객 대상으로 ‘퇴직연금 ETF 모으기 이벤트’도 9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퇴직연금 ETF 모으기’ 서비스 가입 후 1회 모으기 달성 시 커피쿠폰, 5회 모으기 달성 시 아이스크림쿠폰을 전원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 내 모으기 체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객 100명을 추첨해 차진 쿠폰도 지급한다.

삼성증권 ‘퇴직연금 ETF 모으기’ 서비스는 삼성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이나 삼성증권 지점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원관희 기자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도 줄어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39개

고용부, 6월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
내국인 제조업 가입 2.1만명 ↓
건설업은 23개월째 감소세
청년·40대 고용 감소 지속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감소로 전환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도 0.39개로 2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1000명(1.2%) 증가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수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지만,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도 감소로 전환했다. 제조업 전체 가입자 수는 1000명 감소했다. 그간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감소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가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가입자 수는 증가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내국인이 2만1000명 감소하고 외국인은 2만명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가입자가 줄었다.

특히 내국인 가입자 감소폭도 올해 3월 1만7000명, 4월 1만4000명, 5월 1만6000명에서 지난달 2만1000명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제조업분야별로는 자동차·기타운송장비·식품·의약품 부문 가입자는 늘었지만, 섬유·금속가공·기계장비·고무·플라스틱·전기장비 부문은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의 경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는데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수출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세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채용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보니 실제 고용이 어려운 여건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부와 등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기업들의 구인이 움츠러들었다는 설명이다.

천 과장은 "제조업 업종별로 두루 살펴보면 지금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들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고, 감소하는 산업들은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황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 가입자도 지난달 1만9000명 줄면서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 29세 이하 청년층과 '경제허리'인 40대 가입자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29세 이하는 전년동월 대비 9만3000명 감소하며 34개월째, 40대 가입자는 3만4000명 줄면서 20개월째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18만6000명 증가했고, 50대는 4만9000

명, 30대는 7만2000명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39로 1년 전(0.49)보다 더 떨어졌다. 이는 1999년 5월 0.2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11.2%) 줄었지만, 신규 구직인원은 38만7000명으로 4만1000명(11.9%) 증가했다.

천 과장은 "구인배수는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 포함하고 있어 전체 노동시장 수급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업종별로 제조업 구인이 약 7000명 정도 감소했고, 도·소매, 건설업 중심으로 구인이 감소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2000명) 늘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4000명으로 5.0%,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10.9%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전력망 갈등 해법 찾는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전력이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해법을 국민의 시각에서 모색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7월 14일 ~ 8월 14일까지로,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안을 넘어, 전력망 건설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 제도적 한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전력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 도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급성장과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발, 인허가 지연, 이해관

계자 갈등 등으로 인해 수년씩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전력계통 불안정과 산업 투자 차질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전은 이 같은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기술혁신 ▲수용성 향상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제안된 아이디어 중 우수작 10건을 선정해 총 7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1명에게는 300만 원, 최우수상 2명 각 100만 원, 우수상 2명 각 50만 원, 장려상 5명에게는 각 20만 원이 주어진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공모는 미래 세대의 성장 기반이 될 국가기간 전력망을 국민과 함께 설계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행복미밥차', 2만명에 아침밥 전했다

SNS 이벤트로 젊은층 참여 유도

농협이 운영하는 '행복미(미)밥차'가 전국을 누비고 있다. 지난해 세한대를 시작으로 최근 'KLPGA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까지 총 46회를 운행했다. 지금까지 2만여 명에게 아침밥 한 끼를 전하며 건강한 우리쌀과 '밥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행복미밥차는 농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밥차 캠페인이다. 14일 농협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는 이리고(전북 익산), 신일여고(대전), 신성여고(제주), 도계초(강원 삼척)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6회 운행했다.

또 대학 행사와 연계해 아침밥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주대, 협성대 등 대학 축제기간에 밥차를 운영하여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우리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효능을 전파했다. 또한 현장에서 SNS 이벤트를 병행하여 우리쌀 가공식품에 대한 대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지난 4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밥차를 운



농협 행복미밥차.

영하고 있다.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7월 '롯데오픈',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밥차를 운영하며 선수와 캐디 등 대회 관계자들에게 우리쌀로 만든 영양밥샌드, 햄주먹밥, 유부초밥 등을 제공했다.

행복미밥차는 근로자도 찾아가는 6월 부산시교육청, 7월 한화솔루션 여천 NCC를 찾는 등 출근길 곳곳에서 아침밥을 전달하며 근로자들의 든든한 하루를 도왔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천원의 아침밥' 제공을 검토하는 가운데 농협도 적극 동참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식사를 챙기고 업무생산성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미령 "청년농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간담회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개선안 논의
청년농 지원 확대·전문교육 강화 계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년농업인·2030자문단과 만나 청년층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14일 세종 연서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팽스(주)에서 청년보좌역, 농식품부 2030자문단, 청년농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농업법인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2030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개선방안 공유 및 논의 ▲2030자문단 활동 격려 등을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인 청년들과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2030자문단과 현장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농식품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을 받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농정방향과 관련한 의견도 청취했다. 새 정부는 청년농이 농업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 등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준비단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앞으로도 2030자문단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립생태원, 구상나무 구별기술 특허 출원

생태보전 연구·복원 기대 커져

생김새가 유사해 육안 구별이 어려운 구상나무와 분비나무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환경부산하 국립생태원은 구상나무

와 분비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종동정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동정진단 기술 개발은 '환경변화 대응 고산 취약 생태계의 적응 및 보전 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기술은 유사한 외형을 지닌 침엽수종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고산 취약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산 취약 생태계는 고산 지역에서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반응하는 생태계를 뜻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조선, 안전확보·성장기반 함께 모색

산업부, 조선·기자재사와 상생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가 K-조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14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K-조선사·기자재사상생 간담회'를 열고 하절기 조선소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조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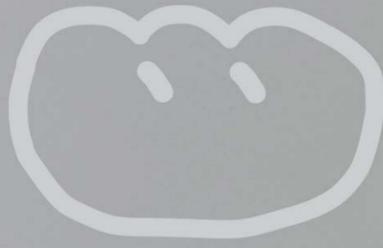
이번 간담회는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주제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사

와 기자재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수주물량으로 현장이 분주하지만, 폭염 속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무더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 확대, 선상 휴게실 설치, 살수차 활용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기자재사들은 조선사와의 협업을 통한 신기술 탑재능력(track record) 확보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경북교육청, 전국 첫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발달' 돕는다

언어·문화 차이에 발달지연 위험 조기진단 프로그램 등 지원 계획 6개월간 39개 어린이집서 운영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이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최초로 이주배경 유아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어린이 집에 재원 중인 이주배경 유아들의 언어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제결혼·외국인 가정 자녀 등 이주배경 유아의 언어 발달 지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보통합 실현과 지역사회 정주 기반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도 함께 담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는 5세 미만 언어 발달 지연 영유아 수는 2017년 7075명에서 2021년 9219명

으로 약 30% 증가했다. 이주배경 유아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 위험이 더 크며 조기 진단과 적절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은 가정·기관·지역사회 연계형 언어 발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조기 진단부터 프로그램 운영, 치료 연계까지 통합적·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3~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유아가 재원 중인 도내 39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개월간 운영된다. 도내 어린이집 3~5세 유아 중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받는 39개소의 유아가 대상이다.

경북교육청은 각 기관에 언어 발달 지원 예산을 지급하고 현장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질적 내실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선정된 기관에 언어 발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급하고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언어 발달이 의심되는 유아에게 종합심리검사 등 진단비를 지원한다.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치료센터와 순회 언어치료사와 연계해 개별·그룹 치료를 제공하는 언어 발달 지연 유아 검사비도 준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언어놀이, 그림책 활동, 독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도 운영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주배경 유아들이 언어 장벽 없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사업이 이주배경 유아들의 언어 발달을 돕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반구천 암각화' 시티투어 개편

울산시는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시티투어 경로를 개편해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세계유산 등재로 예상되는 관광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반구천 일대의 역사·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개편 내용은 기존 토요일 '아름다운 달빛 투어'에 주간 '시간 투어'를 신설하고, 일요일 '패밀리 투어'를 '세계유산투어'로 전환하는 것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부산시는 최근 결혼·임신·출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담은 올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부산에서 삶을 잇다'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올해 처음으로 기획·정리한 종합 정책 자료집이다. 인생 전반에 걸친 주요 지원 정책을 생애 단계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책자에는 ▲결혼 ▲임신·출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공통, 8대 분야 맞춤형 지원 207개 인구정책 사업이 수록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광주시

8월 한달간 폐지수집 중단

광주시가 무더위가 지속되는 동안 어르신들의 폐지수집을 중단하고 그늘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폭염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더위 안전 일자리인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원재생활동단은 8월 한달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폐지 수집을 중단하고 실내·그늘에서 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 재활용품 선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시는 참여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도

저수지 3207곳 저수율 실태 점검

전남도는 최근 이어진 폭염과 짧은 장마로 인한 강수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 3207곳의 저수율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수율 실태, 취수시설 작동 상태, 누수 여부 및 대체 수원 확보 현황 농업용수 공급과 직결되는 주요 항목을 전반적으로 점검, 용수 부족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총 3207곳의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수면적 대비 저수용량이 부족하거나 매년 농업용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중점관리저수지 46곳에 대해서는 저수율 5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비상급수 장비와 인력을 우선 투입해 물채우기를 시행 중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포항시, 수소차 보급·충전 인프라 개선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 상향 충전소 운영시간 연장 등 개선

포항시는 수소자동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소 가격 상승으로 수소차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는 보조금 확대와 민관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수소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했다. 승용 수소차의 경우 기존 대비 500만 원, 수소버스는 6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친환경자동차 중 수소차를 대안으로 고려하는 시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시는 충전소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포항장흥수소충전소 운영 주체, 현대자동차, 전세버스협회 등과 수소시간담회를 열어 이용자들의 목소



포항장흥 수소충전소.

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충전소 운영시간 연장 ▲충전 대기 시간 단축 ▲충전기 고장 대응 체계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충전소 운영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뤘다.

또한 북부권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일만산업단지 내에 오는 2026년까지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소버스를 운행 중인 운수업체와 협력해 대중교통 분야의 수소차 보급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도, 공공 건설현장 36곳 안전점검

내달 말까지 실시

경남도는 시·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도내 공공 건설현장 36곳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건설업은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중 절반에 가까운 64명을 차지해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휴게공간 설치 및 운영 적정성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및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

이다.

경남도는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폭염 시 근무시간 탄력 운영 ▲공사 중지·연장 제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폭염예보 서비스 가입(카카오톡 중대재해사이렌) 등 안전수칙과 우수사례를 민간 건설 현장에도 수시로 안내해 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앞서 5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도내 공공발주 건설현장 988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일제 점검을 시행해 현지 시정 165건, 보수·보강 16건을 조치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되는 이상 기후로 올해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최우수상'

3년 연속 전국 최고수준 성과

경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종합평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경북도는 2023년 최우수상, 2024년 대상에 이어 3년 연속 노인 일자리 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성과를 입증했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도 경북의 성과는 두드러졌다. 김천시와 구미시가 각각 최우수상을, 칠곡군이 우수상을 받으면서 총 3개 시군이 우수 지

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경북도의 전반적인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부문에서도 구미시니어클럽 등 도내 15개 전담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별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총 1억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받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6만40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 데 이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7만 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9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노인복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부산시교육청, AI 교육 네트워크 구축

K-ICT WEEK 행사서

'AI 교육관' 운영

부산시교육청은 15일부터 17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K-ICT WEEK in BUSAN 2025' 행사에 인공지능 교육 사례 공유와 가치 확산을 위한 'AI 교육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K-ICT WEEK in BUSAN 2025 행사는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글로벌 미래선도기술 종합 전시 행사이다.

AI 교육관은 K-ICT WEEK in BUSAN 2025의 3개 세션 중 하나인 'AI IKOREA'에 속하는 행사로, AI 전시와 콘퍼런스를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다양한 교육 분야의 네

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교육관에는 초·중·고·특수학교 26개교와 부산교육청이 참여하는 총 27개 부스가 운영된다.

학교 부스에서는 AI 기반 교육 연구 및 실천사례, 2022개정 교육 과정 정보 교과 확대에 따른 AI·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 성과, AI·정보교과를 활용한 수업 혁신 사례 등을 소개하고, 수업 역량 강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한다.

교육청 부스에서는 추석탁 한얼교 교사의 '디지털 대전환의 첫걸음-개정교육과정과 함께 변화하는 교육 공간 혁신'을 시작으로 초, 중, 고 교사 6인의 AI 기반 수업사례가 발표된다. 또 인기 유튜브 '츨뽀툰'과 이규동 스탠리팀 대표의 진로 특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박물관 관람객 늘고, 굿즈 품질... 농심 기업 홍보효과 '톡톡'

'케이팝 데몬 헌터스' 돌풍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 글로벌 인기로 'K-소비' 붐 확산 캐릭터 더피, 박물관 굿즈와 닮아 '까지 호랑이 배지' 입고 즉시 품질 컵라면 제품명 '신라면' 명시하고 상표는 농심 떠오르는 '동심' 표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그룹 헌트릭스가 컵라면을 먹는 모습.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화면 캡처 /넷플릭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글로벌 시청자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예상치 못한 'K-소비' 붐이 확산되고 있다.

독특한 세계관과 귀계 박히는 OST, 그리고 작품에 등장한 한국 음식과 배경지가 입소문을 타며 실제 관광지와 제품에 대한 해외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니메이션이 콘텐츠를 넘어 K-라이프스타일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된 셈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케데헌'에는 작화도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더피'와 '서씨'가 등장하는데 이로 인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판매하는 '까지 호랑이 배지'는 입고 즉시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작품 속 호랑이 '더피'가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와 닮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같은 화제를 모은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전통문화로 확장돼 박물관 관람객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270만 명을 기록했으며, 온라인숍 일 평균 방문자 수도 26만명으로 집계됐다.

농심도 글로벌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극 중에는 헌트릭스 멤버들이 김밥, 컵라면, 과자 등 한국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 이 가운데 농심 제품과 유사한 식품들이 대거 노출된 것. 컵라면 장면에서는 제품명이 '신라면'으로 명시돼 있고, 상표는 실제 농심 로고를 떠올리게 하는 '동심'으로 표기됐다.

'제니 효과'로 '바나나킥'의 판매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랐던 사례가 이번이

도 되풀이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 3월 블랙핑크 멤버 제니는 미국 NBC 토크쇼 제니퍼 허드슨 쇼에 출연해 '바나나킥'과 '새우깡'을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다. 해당 방송이 나간 후 농심 주가는 나흘 만에 시가총액 약 2600억원이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바나나킥의 누적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했다.

농심은 '케데헌'과 별도의 광고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간접광고 없이도 농심을 떠올리게 하는 제품이 글로벌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것은 농심이 업계에서는 국내 대표 식품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농심은 국내 라면업계 1위 기업이자, 신라면·짜파게티·새우깡 등 단일 품

목 기준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메가브랜드 제품을 6개 이상 보유한 회사다.

한류 관광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국내 OTT 플랫폼인 TVING·웨이브 등에서 흥행한 콘텐츠는 팬덤의 성지순례와 체험형 소비로 이어지며 관광지 유입을 견인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징어게임'이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은 서울 홍대에 마련된 넷플릭스 팝업스토어에서 체험형 이벤트로 이어졌다. 줄을 서서 입장할 만큼 인기를 끈 팝업스토어에서는 달고나 체험, 게임 세트 포토존 등 인증샷 명소가 조성됐고, SNS를 통한 자발적 홍보로 외국인 관광 수도 유입됐다.

방역 이후 명동, 홍대, 인사동 등지

의 카페에서는 '달고나' 판매량이 급증했고, 이태원 클럽에서는 '오징어 게임' 코스튬 파티가 등장하는 등 도심 관광 문화 자체가 콘텐츠를 중심으로 변화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넷플릭스 K-콘텐츠 시청자가 30% 이상 증가한 국가에서 한국 관광 검색량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프랑스, 동남아시아의 검색 지표 상승이 두드러졌다. 보다 앞서 제작된 '킹덤'(2020년)의 경우에도 공개 후 3개월간 전통의상 체험 관광 검색량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지수(K-Wave Index)'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확인된다. 한류지수가 1% 상승하면 소비재 수출은 0.2%, 문화콘텐츠 수출은 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과 식음료, 가전제품, 패션류 등은 한류 스타의 이미지와 콘텐츠에 영향을 받아 수출 탄력을 더했다.

업계 관계자는 "K-콘텐츠가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실제 상품 구매와 관광으로 이어지는 '파급형 소비'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백, 23일까지 K-패션 그로브 팝업

日·中 팝업 두달간 매출 12억 달성 '시티 바케이션' 콘셉트 바탕 꾸며

롯데백화점이 이달 23일까지 잠실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 K-패션 브랜드 '그로브'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그로브는 1960년대의 여성 패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다. 올해 상반기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으며, 상하이에서는 약 두 달간 누적 매출 12억을 달성한 바 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롯데월드몰 그로브 팝업스토어는 '시티 바케이션(CITY VACATION)' 콘셉트를 바탕으로 꾸며졌다. 220여 종류의 그로브 '핫 써머 컬렉션'이 마련됐으며, 질 판됐던 상품도 한정 수량으로 재출시해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 '그로브' 팝업스토어를 구경 중인 고객들 모습 = /롯데백화점

선보인다. 푸마와 그로브가 협업해 선보이는 '모스트로 페이 그로브 아트모스 핑크'도 오프라인 단독으로 준비했다. 모스트로 페이 그로브 아트모스 핑크는 푸마 대표 스니커즈인 '모스트로 페이'를 재해석한 제품이다.

롯데백화점 김이은 영디자이너팀 선임상품기획자(치프바이어)는 "그로브는 국내를 비롯해 해외의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상 중인 브랜드"라며 "이번 팝업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K-패션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온, ON국민 민생회복 소비지원 기획전

비너스·입생로랑 등 브랜드 할인

롯데쇼핑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이달 23일까지 '온(ON)국민 민생회복 소비지원-물가단속'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먼저, 롯데온은 이날부터 '브랜드 판타지' 코너를 통해 ▲비너스 ▲입생로랑 ▲아벤트 ▲해피프린스 등 패션·뷰티 브랜드 할인 혜택을 차례대로 제공한다. 같은 기간 '생활품 브랜드 페스타'도 진행한다. 피실, 프리, 베베썬, 라엘, 깨끗한나라 등 생활품 브랜드를 사

은품과 함께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외에도 '패션 창고 대방출' 기획전을 통해 밀레, 엘칸토, 폼파노 등 브랜드의 이월 패션 상품을 할인가에 소개한다.

매일 3개 혜택 상품을 선보이는 '물가단속 반평지원 프로젝트' 코너도 마련했다. 대표 상품으로 'CJ제일제당 비비고 육류 가득 고기만두', '농심 신라면', '애플 정품 아이폰 맥세이프 충전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호주서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 출시

CJ제일제당, 대형마트 울워스 입점

CJ제일제당이 호주 대표 유통채널에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을 출시하며 오세아니아 시장 확장을 본격화한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을 호주 1위 대형마트 울워스(Woolworths)에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호주에 비비고 치킨이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제품은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

킨 양념맛·소이허니맛(bibigo Korean Style Fried Chicken with Sweet & Spicy Sauce·Soy Honey Sauce)' 2종이다.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닭고기와 별도로 포장한 한국식 양념치킨과 간장치킨 맛 소스를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춰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울워스에 이어 또 다른 현지 대형마트 체인인 IGA에서도 다음달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신원선 기자

G마켓-코카콜라 '올인' 프로모션 진행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코카콜라와 손잡고 '올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인은 G마켓이 핵심 파트너사와의 협업으로 선보이는 신규 프로모션이다. G마켓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주요 기획전 코너, 특가딜 코너 및 다양한 알림 아이콘을 통해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한다. 또, 주력 상품 할인 폭을 확대하고, 단독 기획상품도 선보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하이트진로, 日 위스키 '후지' 4종 첫 선

싱글몰트 등 6종 라인업 완성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일본산 프리미엄 위스키 '후지(FUJI)' 시리즈 4종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수입한 2종 '후지 산로쿠 시그니처 블렌드', '후지 싱글몰트 위스키'에 더해 총 6종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후지 블렌디드', '후지 싱글블렌디드', '후지 싱글그레인', '후지 싱글몰트 17년' 총 4종이다.

'후지 블렌디드'는 개성있는 원액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한정 에디션이다. 크리미한 무게감과 서양맥주와 같은 과일향에 숙성된 붉은 과일의 달콤한 맛과 나무의 산뜻한 풍미가 특징이다.



후지 위스키 6종. /하이트진로

'후지 싱글블렌디드'는 고텐바 증류소가 지향하는 블렌디드 위스키의 정석으로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만족하는 이상적인 데일리 위스키다.

'후지 싱글그레인'은 세가지 그레인 위스키가 어우러진 풍부한 과일향과 은은한 스파이시함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다.

'후지 싱글몰트 17년'은 고텐바 증류소의 몰트 위스키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신원선 기자

“패션도 재테크 되는 시대”... 잘파세대가 키운 리셀 열풍

(1990~2020년대 중반 출생 세대)

단종·희소템 중심 ‘유행 재판매’
네이버 크림 20대 결제 비중 56%
그립 중고 거래 3년간 142% 증가
이베이 중고 판매 40% 이상 돌파

잘파세대(1997년~2000년 초반)를 중심으로 패션 중고 거래(리셀) 시장이 다시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불황형 소비 추세에 따라 등락을 오갔던 리셀 시장이 하나의 세대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잘파세대가 가장 많이 이용한 플랫폼은 크림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 크림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중고 패션 플랫폼이다.

특히, 잘파세대 결제금액 비율은 56.2%로, 크림 이용자 중 과반 이상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 플랫폼인 지그재그 (49.9%), 무신사 (36.3%)보다 높은 비율이다.

한때, 코로나19로 급성장했던 리셀



그립 플랫폼 관련 이미지.



/그립 리셀 플랫폼 크림 홈페이지 전면 이미지.

/크림 홈페이지 갈무리

시장은, 엔데믹 이후 침체에 접어들었다. 과거 대표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 불렸던 당근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3대장은 지난 2023년 기준 각각 마이너스 (-)91억, -216억, -38억원의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이후 집 밖으로 나서는 소비층이 많아지면서 업황이 침체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패션 분야를 중심으로

중고 시장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글로벌 중고 패션 시장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향후 3년간 48.7% 성장해, 일반 패션 시장 성장률의 약 6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쇼핑에 플랫폼이었던 그립의 중고 상품군 누적 거래액은 최근 3년간 142% 증가했

다. 지난 2023년 거래액이 전년 대비 79.9%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34.6%로 늘면서 3년 새 2.4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인 이베이 역시 지난해 전체 매출 중 중고 및 재판매 상품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베이는 이미 단종되었거나 희소가치가 있는 상품을 재판매하는 형태

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리셀 시장이 불황형 소비와 상관없이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최근 중국 캐릭터 인형인 ‘라부부’가 중고로 고가에 유행처럼 거래되면서, 패션과 굿즈(팬상품)를 중심으로 리셀 시장이 다시금 부흥기를 맞았다”며 “이제 리셀 시장은 불황 소비량 관계없이, 유행 자체를 사고파는 세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중고 시장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보면, 희소하다는 이유로 상품이 팔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소비 측면에서 중고 거래를 지향하는 것은 좋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이 상품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채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오스템임플란트, 트리플타워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인천 송도 복합단지 완공
R&D부터 교육까지 집약

오스템임플란트가 국내 인천 송도에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오스템임플란트 자회사 오스템글로벌은 지난 11일 인천 송도 5·7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에서 ‘트리플타워’ 준공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트리플타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미래 비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지다.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4년 넘는 대장정 끝에 완공됐다.

특히 트리플타워는 연구개발을 위한



지난 1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트리플타워 준공식’에서 오스템글로벌 및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복합 단지로 설계됐고, 장비 제조, 글로벌 임상 지원, 혁신기술 개발, 교육, 디지털 치의학 플랫폼 구축 등을 다양하

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조동(동쪽), 연구동(중앙), 사무동(서쪽) 등 세 동을 나란히 세웠다. 각 공간의 주요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오스템의 글로벌 역량을 집약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오스템글로벌은 트리플타워를 통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스템임플란트는 물론 국내 치과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다.

김해성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는 “많은 이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이뤄낸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이제부터 이곳 ‘오스템글로벌 트리플타워’에서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조아제약

반려견 헬스케어 진출
영양제·치료제 6종 첫선

조아제약이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반려견 전용 브랜드 ‘잘크게’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잘크게 신제품은 반려견의 주요 건강 고민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들이다. 치아·잇몸 건강 영양제 ‘덴탈케어’, 장 건강을 위한 ‘트리플바이오틱스’, 피부·피모 건강을 관리하는 ‘더마케어’, 관절·연골 영양제 ‘위키퍼’ 등 영양제 4종과 귀 세정제 ‘오티케어’, 피부염·중이염 치료제 ‘포레신’ 등 총 6종으로 구성됐다. 영양제 제품군은 분말 제형으로 사료나 간식에 혼합해 급여하면 된다. 알약 섭취가 어려운 소형견이나 노령견에게도 급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또 1회분씩 개별 포장된 스틱포 형태로 설계해 휴대 및 보관이 간편하다.

/이청하 기자

LG화학, 여성 가임력 관리 앱 선보여

가임·난임 통합관리 앱 ‘블룸’ 선보여

LG화학이 어디서부터 정보를 찾아야 할지 막막한 가임 및 난임 정보를 한 데 모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선보인다.

LG화학은 임신을 준비하며 난임을 겪고 있는 모든 가임기 부부, 가임력 보존 정보 등이 필요한 일반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앱 ‘블룸(BLOOM)’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블룸은 ‘새 생명’의 기쁨과 임신한 여성의 ‘부른 배’를 상징한다.

블룸은 LG화학이 대한생식의학회와 대한보조생식의학회 전문가 및 검증된 콘텐츠를 신뢰도를 한층 높인 앱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가임 및 난임 정보를 앱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LG화학은 앱 개발을 위해 가임기 여

성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 및 기능만을 선별해 메뉴를 구성했다.

‘난임백과’와 ‘가임력 자가진단’이 대표적 메뉴로 난임의 원인부터 가임력 보존 방법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의 자문과 국내외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구성된 10개의 짧은 문항을 통해 맞춤형 가임력 관리 방안도 제시한다.

LG화학 김성호 스페셜티-케어 사업부장은 “국내 난임 치료 시장 1위 기업으로서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블룸’을 선보인다”며 “난임예방, 난자동결 등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일반 여성들도 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여성 헬스케어 전반으로 콘텐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애경 리큐, 72시간 지속향 캡슐세제 선보여

섬유 세탁·탈취·향기까지 한 번에

애경산업은 스마트 액체세제 브랜드 ‘리큐’에서 ‘퍼포파워캡슐 코튼허그향’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섬유 세탁, 탈취, 향기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캡슐세제다. 음식물부터 피지, 미세먼지 등 생활 얼룩을 강력하게 제거해 주고, 99% 탈취 및 72시간 향기 지속력을 갖췄다. 또 차가운 물에도 잘 녹는 용해력 99.9%의 프리미엄 필름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코튼향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곰 캐릭터 케어베어가 적용된 디자인이 포근함을 표현하고, 아쿠아 블루 색상은 깨끗함을 연출한다.

지난 1982년 미국에서 탄생한 케어



리큐 ‘퍼포파워캡슐’ 코튼허그향. /애경산업

베어는 장난감,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은 리큐X케어베어 한정판 굿즈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제약바이오협회

R&D센터 문 열었다
산·관 협력 물꼬 트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1일 GC녹십자와 함께 목암캠퍼스 R&D센터에서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과 협회 관계자 등 모두 60여명이 현장을 방문했다. 행사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C녹십자 목암캠퍼스 R&D센터를 방문해 연구시설을 견학하고 연구시설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세경 기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7월 22일(화) 오후2시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주제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 일시 2025년 7월 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 달러약세와 지배구조 개선이 가져올 한국증시의 변화
강연	14:50~15:30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 : 글로벌 자산배분과 리스크 대응형 포트폴리오
	15:30~16:1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내 집은 자산일까, 부채일까? 초고령사회에서의 주거전략과 부동산 시장 전망
	16:1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트럼프 2기와 스테이블코인: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학균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장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박희운
-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
- KB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정재훈
-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민승
- 코빗 리서치센터 설립 멤버 및 리서치센터장
- 다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 업무 수행



중견련, 주한인도대사 접견... 인도 진출 모색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진식 회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아 및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를 접견하고 중견기업들의 새로운 생산 거점인 인도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산나눔재단, '엔비디아 인셉션' 회원사 선정

아산나눔재단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주관하는 '엔비디아 인셉션 VC 얼라이언스'의 회원사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NH투자증권,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NH투자증권은 윤병운 사장(가운데)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아제약, '박카스배 SBS GOLF' 성료

동아제약은 미래 골프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4일 밝혔다.



롯데월드, 제17보병사단에 2억 상당 위문품 전달

롯데월드는 '1사 1병영' 결연 부대인 제17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2억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학교스포츠클럽에 양궁 정식종목 추진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 성료 학교 보급형 규칙 개정 등 나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올해도 국내 양궁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남서울대학교에서 '2025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2년부터



'2025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활시위를 당기며 승부를 겨루고 있다.

대한양궁협회와 공동으로 연 2회 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궁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도입한 학교와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이번 대회에는 전국 21개 중학교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지난 4년간 이 대회에 참가한 학교와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생

활 체육으로의 양궁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회에는 현대모비스 여자양궁단 소속 선수들도 재능기부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선수들은 학생들에게 활 쏘는 법을 시범으로 선보이고, 학생들과 이벤트 시합을 펼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부터 학교스포

츠클럽 정식 편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양궁협회와 함께 학교 보급형 양궁 규칙을 개정하고,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교재도 제공한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1986년 여자실업 양궁단 창단 이후 40년 넘게 한국 양궁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김기문 "중국-中企 협력에 지지 부탁" 오뚜기, '집밥 쿠킹클래스' 참가자 모집

(중기중앙회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 '양국 중企 교류 가교 역할' 약속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분회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한-중 정상간 통화 등 양국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중 비자면제 조치로 양국의 인적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자 중요 경제파트너인 중국과 중소기업 분야의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예방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이빙 대사는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호 기자 bada@

KT의 20대 브랜드 Y와 협업

오뚜기가오는 20일까지 Y(2034)세대 1인 가구를 위한 '와이로운 집밥 생활 쿠킹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KT의 20대 브랜드 Y와 협업한 '와이로운 독립 생활' 캠페인의 일환으로, 1인 가구 청년층의 독립생활을 응원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와이로운 집밥생활 쿠킹클래스'는 오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오뚜기 쿠킹하우스에서 진행되는 '오뚜기 쿠킹하우스'는 서울 오뚜기 스튜디오에 이어 오뚜기가 선보인 두 번째 쿠킹 경험 공간으로 다

양한 테마의 쿠킹클래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혼자서도 건강한 한 끼'를 주제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균형 잡힌 1인 집밥 메뉴를 선보인다. 오뚜기 제품을 활용한 ▲가뽀한끼 라이스볼 ▲매콤달콤 애플팝 ▲라이트앤조이 복숭아 편지 등 총 3가지 메뉴로 구성된 메인 요리부터 디저트 음료까지 1인 가구에 최적화된 레시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키친 스튜디오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뚜기는 이번 부산 클래스를 시작으로 서울 오키친 스튜디오에서 2회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칠성음료,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노사 파트너십 강화 등 노력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운영

롯데칠성음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모범적인 노사문화 실천의 공적을 인정받아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1996년부터 매년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올해는 우수기업 40개사(대기업 13개사, 중소기업 19개사, 공공기관 8개사)가 선정됐다.

롯데칠성음료는 51년 노사 무분규 사업장으로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대내외 경영환경의 변화에도 노사협력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노사 간 위기 극복의 기반을 구축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수익개선 활동(ZBB) 프로젝트, CEO의 노조간부 경영설명회 및 IR자료 공유 등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소통, 대의원교육, 노사합동 워크숍 및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노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그린위드' 운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고 고령자 기준고용률(10.4%)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 이상의 모성보호 휴직제도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롯데칠성음료는 노사의 꾸준한 노력으로 협력사와 ESG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에는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신원선 기자

현대차, '넥쏘 러브콜 캠페인' 제안

유재석, 러브콜에 화답

현대자동차가 제안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비전에 방송인 유재석 씨가 화답했다.

지난 6월 현대차는 친환경 가치와 수소 모빌리티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넥쏘 러브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에게 디올 뉴 넥쏘의 여정에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강남대로와 도산대로 인근 등 서

울 시내 5곳에 설치된 옥외광고에는 '디어, 엠씨유' 라는 글귀와 해당 인물을 유추할 수 있는 안경과 정장이 미지가 담겼다.

현대차가 러브콜을 보낸 해당 인물은 유재석으로 지난 7일 유재석은 넥쏘 러브콜에 대한 화답으로 "CO2 없이 떠나는 수소 모빌리티의 여정, 저 유재석도 넥쏘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현대차 공식 유튜브와 소속사 안테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했다.

/양성운 기자

인사

- ◆ 한국로슈인사 ◇ 분자진단사업부 본부장 △조승희 전무
◆ 한국에탁결제원 ◇ 본부장 업무분장 △경영지원본부부장 김민수 △투자지원본부부장 김용삼 △ESG전략본부 본부장 백상태

부음

- ▲ 신성인씨 별세, 안찬보씨 남평상, 신유경(㈜영화인 대표)·신현경·신경일(㈜플래닛픽처스 대표)씨 부친상, 김단비씨 시부상 = 13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02-3779-1526

여성 관객
만족도 1위

MUSICAL

헝키 Show

오직 여성만을 위한 LADIES PARTY!

엄마와 딸, 동료, 그리고 현실에 지친 모든 여성들에게
유쾌하고 핫한 바텐더들이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HUNKY
SHOW
보러가기



더 섹시하고 화려하게 돌아온 화이트 코미디 뮤지컬

2025.4.25 - 8.31 스타스테이지

문의 | 주식회사 아트컴퍼니

070-4287-0258

<헝키쇼 실제 후기>

● k9872**님

★★★★★

어머니께 찐 효도하고왔어요!!^^

와~ 진짜 그런 찐 행복한 표정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공연 끝나고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효도 다 했다!! ㅋㅋ 너무 고마워 ㅋㅋㅋㅋㅋㅋ
엄마도 여자라는 사실!!^^

● arri***님

★★★★★

눈호강 제대로 하고온 날!!!!!!

어머니께 평생 잊지못할 기억을 남겨드렸다.
엄마랑 이런 뮤지컬 괜찮나..? 싶었는데
안봤으면 죽을때까지 땅 치고 후회할 뻔!!!

● queeno***님

★★★★★

스트레스 뺏!! 도파민 엔돌핀 뿜뿜!

최근들어 이렇게 웃어본적이 언제인가 싶네요.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났어요. 관객참여형이라 더 좋았고
열정적인 춤사위는 아이돌가수의 춤을 보는듯 했어요.

● louk***님

★★★★★

헝키쇼, 상상을 초월하네요

사실 젊은 친구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시누이와 형님,
엄마와 딸, 다양한 연령대! "내 엄마도 여자다!" 그말에
참 많은 생각을하게했던공연이었습니다.
미친 퍼포먼스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진성오 소장의
신비한 심리사전

시간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다양한 물리학자의 주장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과정은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는 일방향의 선형적 구조로 구성되는 것 같다. 또, 우리의 언어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순서를 가정하고 특히 우리 좌반구는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변화를 설명하는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과적 과정은 그냥 우리의 인식일 뿐이지, 실제로는 시간이란 절대적이지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과학적 사실들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서 나오고, 카를로 로베릴 같은 물리학자는 시간이란 우리의 인식 구조안에서만 존재하지, 물리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시간이 된지 오리 무중으로 빠지는데, 이러한 양자역학적 상상력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잘 표현한 일본 영화가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이다.

이 영화는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이야

기를 다룬다. 사랑의 감정은 같은 순간에 존재하지만, 그 순간에 이르는 두 사람의 시간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영화에서는 5년마다 한 30일의 만남이 있다. 주인공 다카토시와 에미는 서로의 '지금'에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경험과 기억은 서로 다른 시간선 위에 존재한다. 에미는 5년 전 다카토시와의 만남을 기억해왔고, 다카토시는 이제 막 에미를 알게 된다. 이 비대칭적 기억은 뇌과학에서 말하는 '에피소드 기억'과 깊은 연관이 있고 에피소드 기억은 개인의 고유한 경험을 시간적·공간적 맥락 속에 저장하는 기억체계다.

에미는 다카토시와의 수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카토시는 아직 이 관계의 출발선에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에미의 시작이 다카토시에게는 끝이고, 다카토시의 시작은 에미에게는 끝이된다.

하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지금 이 순간'은 양방향의 기억과 감정이 교차하며 둘의 만남이 시간을 넘어서는 어떤 연결로 남게 된다. 이는 물리적 현실과는 모순되지만, 인간의 주관적 시간 경험과는 유사하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지속의 감각'을 통해 인간은 현재를 연속적인 흐름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다카토시와 에

미는 이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상대가 잃어버릴 감정을 경험한다. 기억은 시간이라는 축에서 반대되어 사라지지만 둘의 사랑은 단순한 시간의 선형적 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는 우리의 관계와 기억이라는 특성이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라져 가는 기억들을 접하는 삶의 경험은 우리에게 필연적이다. 그것이 같은 시간 축에 있으면서 공통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기억을 잃어가고 잊혀지고 누군가는 기억을 만들어간다.

주인공 에미의 시간 축에서 에미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미래가 곧 이별이라는 사실 때문에 현재를 더욱 절절하게 살아낸다. 다카토시는 과거를 알지 못하기에 순수한 감정으로 에미를 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별을 직감하게 된다.

영화는 진정한 사랑이란 결국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의 지위될 기억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의 기쁨과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주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만이 영원히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해준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오늘의 운세 7월 15일 (음 6월 21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하루. 48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른다. 60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서 일을 추진. 72년생 미끄럼에 주의해야 하니 오후 운전은 서행. 84년생 세상사에는 불가사의 한 일도 있게 마련.

소 37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이 들어오는 날. 49년생 운동을 삼가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 61년생 책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이다. 73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연쟁이 커진다. 85년생 건강검진을 받고 별일이 없다는 진단을 받는다.

호랑이 38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정진하라. 50년생 손톱 밑 작은 가시로 마음고생. 62년생 직장에서 예의 바른 행동이 작은 허물을 덮어준다. 74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 주의. 86년생 외출을 자제하고 책상 정리. 88년생 네 탓 내 탓은 접어야 해결책이 보인다.

토끼 39년생 무리일지라도 시작한 일들은 끝을 봐야. 51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조심. 63년생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니 현실을 파악하자. 75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히. 87년생 투자와 적선을 구분하고 행동.

용 40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52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 64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을. 76년생 가뭄이 해갈되듯 일이 잘 풀린다. 88년생 네 탓 내 탓은 접어야 해결책이 보인다.

뱀 41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53년생 유래하고 즐거운 일이 남는다. 65년생 일이 어려우나 주변 도움으로 깔끔하게 해결. 77년생 용피와의 거래가 순탄치 않다. 89년생 오늘 무엇을 할지 10분만 정리를 해보자.

말 42년생 매화가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54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 66년생 말을 안 해도 가족은 서로 이해해 가는 것. 78년생 믿음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온다. 90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양 43년생 믿어주는 사람이 많으니 행복. 55년생 주저하지 말고 실행. 67년생 의견통일이 어려우니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행동. 79년생 상대의 단점을 말하면 내게 다시 돌아오니 말조심해야 할 것. 91년생 부모님 방문으로 하루가 즐겁다.

원숭이 44년생 이성의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자애하시길. 56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평소 내 탓이다. 68년생 너무 방만하면 위험에 빠진다. 80년생 지식이 풍부하도록 평소 공부. 92년생 도전할 기회가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닭 45년생 시련이 와도 희망과 용기를. 57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주의. 69년생 욕심 버리면 이득이 생긴다. 81년생 양보의 미덕은 늘 인생에 보탬이 되는 게 세상사. 93년생 표현 못하는 것은 인정상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겠다.

개 46년생 효율적인 가계를 위해 저축을 계획. 58년생 남동쪽으로 여마의 운이 있다. 70년생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 결국 작은 차이에서 비롯. 82년생 평온을 찾으려면 자기 실력을 배양. 94년생 새로운 희망을 위해 다시 노력.

돼지 47년생 사랑이 싹트고 운세가 풀리니 가족의 화목함이 오기시작. 59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도 무리가 없다. 71년생 지고도 이기는 법이 있다. 83년생 경쟁하러다 조금 힘을 부른다. 95년생 지나친 선물은 뇌물이 되는 시대이니 절해야.

김상회의 四季 생전 예수재의 공덕

천도재를 가볍게 여겨 칠 일마다 지내는 49재는 물론 초재나 막재도 지내지 않는 판국이다. 그러나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고 재산을 물려줘도 무시하고 넘어가니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윤달을 어찌 그냥 보낼 것인가? 생전 예수재에 관해 찬탄하는 글을 살펴보자. 봄에 뿌린 한 알의 씨앗은 가을에 가서 천만 개의 씨를 맺는다. 예수재를 지낸 공덕 또한 이와 같으니라. '라고 관정경(灌頂經)'이라고도 불리는 불설관정수원왕생시방 정토경(佛說灌頂隨願往生十方淨土經)에서는 이처럼 생전 예수재의 공덕을 치하하고 있다.

불보살님을 비롯해서 명부의 시왕 또는 그 권속을 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또 전생에서 진 빚을 갚아 그 공덕으로 내생에서의 복을 기원하는 예수재는 무량한 공덕이 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승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해 심판을 받는데 이를 심대왕이 관장한다. 심대왕은 '시왕' 또는 '시왕님'이라고도 불린다. 심대왕은 그 명칭 그대로 10명의 신격으로, 각각 독자적인 이름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제1 진광대왕(秦廣大王), 제2 초강대왕(初江大王), 제3 송제대왕(宋帝大王), 제4 오관대왕(五官大王), 제5 염라대왕(閻羅大王), 제6 변성대왕(變成大王), 제7 태산대왕(泰山大王), 제8 평등대왕(平等大王), 제9 도시대왕(都市大王), 제10 전륜대왕(轉輪大王) 또는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 등이 심대왕의 구체적인 이름들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분이 바로 염라대왕인데, 그분은 특히나 시왕 중에서도 재판장의 역할도 함께 하고 계시니 명을 마치고 온 자들을 다시 이승으로 보내는 판단을 하는 분으로도 알려져 있다. 생전 예수재를 지내는 공덕은 다음날에 열가지 복으로 정리하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1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15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전략,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



기지수첩
이혜민 (산업부)

일본이 반도체를 '산업의 쌀'로 재정의 하며 국가 차원의 산업 재건에 한창이다.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이 시장 점유율 10% 미만으로 추락한 지 30여 년 만의 본격적인 반격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향후 5년간 반도체·AI 분야에 10조 엔(약 9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것만 봐도 각오가 남다르다. 이미 3조8000억 엔을 투입한 데 이어 거의 3배 규모의 추가 자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략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다. 자국이 여전히 강점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기반으로

TSMC,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투 트랙 접근법이다.

특히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nm)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야심작이다. IBM, IMEC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려는 전략이다.

더 주목할 점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정부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테리스트, FC-BGA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며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책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단기적 세계 혜택을 넘어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패일 세이프(Fail-Safe)' 전략이다. 정책이 기

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축적된 기술·인재·지식자산을 활용할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민첩한 대응 역량 구축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면 정부와의 공동 전략이 필수다.

셋째, 상호보완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국적과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적 지원과 기능 중심 생태계가 핵심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위기, 중국의 추격, 일본의 재건 의지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반도체 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효과 품목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일본이 30년 만에 깨달은 이 진실을 한국은 더 늦기 전에 받아들여야 한다. /hyem@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겨라!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라이드의 활동영역을 증가시켰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6 8 9 2 9 2 8 7
9 2 7 7 8 6 6 1 9
7 9 8 2 6 1 2 8 9
9 1 7 2 2 8 9 6 8
8 2 9 8 7 6 1 9 2
6 8 2 9 1 9 8 7 2
2 9 6 8 9 7 8 2 1
2 7 1 6 8 2 9 9 8
8 8 9 1 9 2 7 2 6
6 1 8 9 2 8 7 2 9
9 2 7 2 9 6 8 1 8
8 2 9 8 7 1 9 2 6
2 8 6 2 8 9 9 7 1
9 8 2 1 6 7 2 9 8
7 9 1 8 2 9 8 6 2
2 9 2 6 8 8 1 9 9
8 9 9 7 1 2 6 8 2
1 6 8 9 5 2 2 8 7

서울시, 스타트업 생태계 키운다 AI기업 ‘아우토크립트’ 상장 성공

(모빌리티 보안 전문기업)

펀드 받은 기업 중 첫 상장
1차로 300억 펀드 출자 진행
총 4850억 목표 운용사 공모

서울시의 창업 지원과 펀드 투자를 받은 모빌리티 보안 전문기업 ‘아우토크립트(AUTOCRYPT)’가 최근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등 가시적인 투자 성과가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펀드 투자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7~8월 중 총 48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300억원을 출자 약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중 절반 이상을 AI 산업에 집중적으로 출자해 AI 중심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투자로 경쟁력을 키워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아우토크립트는 2019년 8월 창업한 세계 유일의 풀스택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자동차 내외부 통신 보안부터 유럽 수출용 평가인증기관(Technical Service, TS)까지 제공 가능하다. 2023년 9월 서울시 출자 펀드 운용사의 추천으로 서울창업허브 공덕에 입주했으며, 서울시 출자 펀드 5개로부터 총 14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우수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시장에 안착하고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올해도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미래 유망산업 발굴과 창업생태계 촉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2026년 4년간 서울시 출자액과 정부보

태펀드, 민간 투자금을 연계해 총 5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시는 지난 2년간 총 1510억원을 출자 약정해 2조 6646억원을 조성했다.

앞서 지난 2월 시는 ‘AI SEOUL 2025’에서 AI산업 육성 7대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서울 Vision 2030 펀드 내 AI 특화펀드를 신설해 2년간 총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성 3년차인 올해 첫 출자사업은 ▲미래 혁신의 핵심인 AI 분야 투자 강화를 위해 신설한 ‘인공지능대전환’ ▲시장 침체로 신속한 투자지원이 필요한 ‘바이오’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첫걸음동행(엔젤)’ 분야 등에 총 300억원을 우선 출자한다.

특히, 인공지능대전환분야는 융복합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AI인프라 및 핵심모델, 데이터분석·컴퓨팅, AI융합 서비스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민간과 함께 조성한 ‘서울 미래혁신성장 펀드(2019~2022)’를 통

해 AI 기업 262개사에 6115억원, 서울 Vision 2030 펀드(2023~2024)를 통해 AI 기업 51개사에 728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고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도유망한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사 제안서 접수는 14일 오후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제안서는 ‘중이 없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서울시 웹하드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서울 Vision 2030 펀드 출자사업’ 공고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과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www.sba.seoul.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올해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미래 혁신의 동력이 될 AI 분야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라며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융복합 산업이 출현하고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유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Vision 2030 펀드’가 지속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청렴 제도 추진

오늘 ‘청렴 선포식’ 개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선수의 공정한 성장과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5일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유관 순기념관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교운동부 청렴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렴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청렴 선포식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관행을 차단하고, 학생선수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는 자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 강화를 병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운동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문단인 ‘청

대문(청렴의 대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자문단의 제언을 토대로 ▲학생선수 성장통지표 시범 운영 ▲운동부 정보공개 강화 ▲불법 찬조금 방지를 위한 암행 점검단 운영 ▲지도자의 청렴교육 의무화 등 후속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6학년도부터 관련 정책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선수 성장통지표는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 훈련참여도, 대회출전 기록, 성장가능성 등을 담아 매 학기 1회 가정에 통지된다. 또한 서울학교체육포털을 통해 각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과 지도자 정보, 진로진학 결과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청렴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제도와 실천이 결합된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의 시작”이라며 “학생선수의 성장과 학부모의 신뢰, 지도자의 전문성을 모두 아우르는 투명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교통혁신·미래산업으로 도약

테크노밸리·K-컬처 등 유치 박차

민선8기 고양시는 미래산업 추진에 고삐를 죄고 자족도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지난 3년간 산업, 교통, 도시 정비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며 발로 뛰는 행정으로 문화, 복지 등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 교통 혁신과 스마트 도시화

GTX-A 킨텍스역 개통으로 서울역까지 16분, 서해선과 교외선 재개로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 대곡역은 5개 노선이 모이는 ‘텐타역세권’으로 부상했으며, 버스 준공영제와 환승 시설 확충도 진행 중이다. 동시에 원도심 정비와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도 본격화됐다.

◆ 복지 및 소통 중심 행정

출산지원금, 주거비 지원 등 가족친화 정책이 호평받고 있으며, 교육특구

지정과 청년 창업공간 개소 등으로 미래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했다. 노인 일자리 9,000여 개를 제공하고 시민 소통을 위한 간담회, 민원 TF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 미래 산업 육성과 경제 기반 강화

고양시는 글로벌 공연도시로 부상 중이며, 벤처기업육성지구 지정 후 40여 개 기업이 입주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추진 중으로, 바이오, 모빌리티, K-컬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드론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그동안 경제, 산업, 일자리가 도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시간을 쏟아왔다”며 “꿈꾸는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도시 전환과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국민검증단 “이진숙, 자진 사퇴하라” 압박

논문 21편 중 18편서 표절 정황
IRB 미기재·중복게재 드러나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다수 논문에서 표절 의혹을 받으며 연구윤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학계 국민검증단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했던 ‘법학계 국민검증단’은 14일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21편을 전수 조사한 결과, 18편의 표절률이 20%를 넘어 학계 기준상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라며 “표절률이 50%를 넘은 논문도 있으며, 학위논문은 표절한 논문에서 제자를 저자가

아닌 실험대상처럼 취급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증단이 대표적 사례로 든 논문은 2009년 학술지에 발표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다. 이 논문은 실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했지만, 제자 이름은 빠지고 이 후보자만이 제1저자로 등재됐다. 표절률은 52%에 달했다. 이 밖에도 제자 논문을 활용하고도 교신저자로만 기재하거나, 심지어 본인 논문 게재 시점이 제자의 학위논문보다 앞선 경우도 4건에 달했다고 검증단은 설명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서로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2건의 논문도 분석했다. ‘피로감 평가 연구’와 ‘볼록글레어 평가 연구’라는 제목으로 실린 두 논문은 실험 환경, 피험자 구성, 분석 방식, 결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유사했으며, 표절률은 최대 40%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윤리 위반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증단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위계관계 안에서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논문이 5건에 이른다”라며 “이런 경우 자율적 동의를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15일 (화)
음력 : 6월 21일
수도권 날씨
22~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21/29, 동두천 21/29, 가평 22/29, 파주 21/28, 서울 22/29, 양평 22/29, 인천 22/28, 수원 22/28, 용인 22/28, 평택 22/28



▲젠슨 황 “중국군, 엔비디아 시칩 활용 가능성 낮아”
▲트럼프 “푸틴에 실망…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지원” 첫 무기 승인 /사진 뉴시스

▲미오염수, 13차 해양 방류 시작… 삼중수소 농도 상향 방침
▲가자지구에 끊이지 않는 절규… 21개월 간 이어진 전쟁에 5만8000명 사망

▲비트코인 사상 첫 12만달러 돌파… 신고가 경신
▲6월 중국 수출액 5.8% 증가… “예상 넘게 증가율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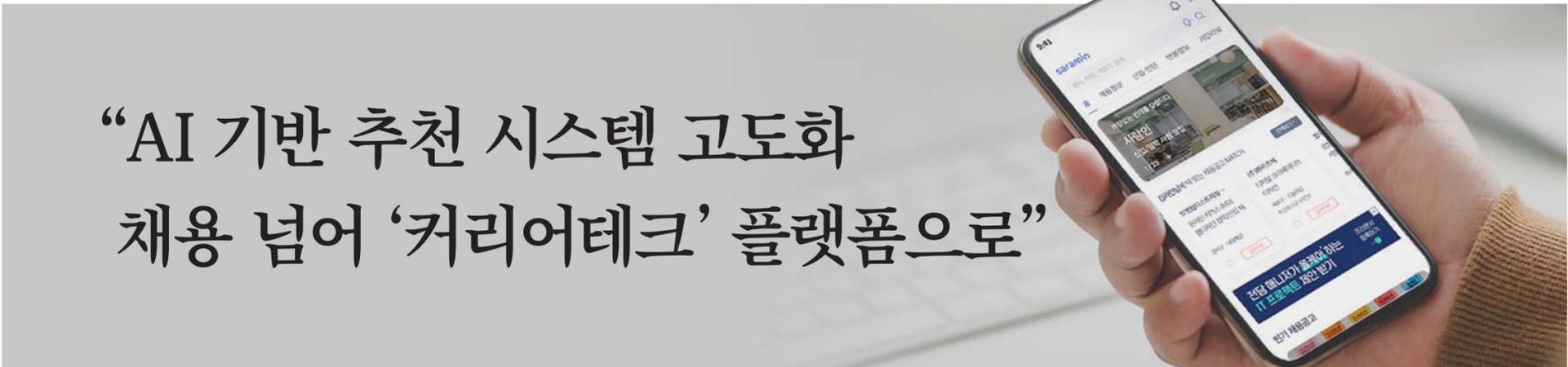


‘케데헌’ 돌풍에
박물관 관람 늘고
농심 기업 홍보효과
나



Life

패션도 재테크
잘파세대가 키운
리셀 열풍
L2



“AI 기반 추천 시스템 고도화 채용 넘어 ‘커리어테크’ 플랫폼으로”

인터뷰 | 황 현 순 사람인 대표

사람인이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채용 플랫폼을 넘어 커리어 전주기 설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14일 사람인에 따르면, 사람인HR은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전면 고도화하며 채용 플랫폼을 넘어 커리어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커리어테크’ 플랫폼으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현순 사람인HR 대표는 “AI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사람의 복잡한 선택 과정을 도와주는 ‘설계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기술을 중심에 두기보다, 사용자 경험과 커리어 흐름에 맞춰 기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본다.

황 대표는 “기술은 앞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추천이 너무 정확해서 자연스럽다’고 느낄 때, 진짜 플랫폼이 완성된다. 우리는 기술보다 경험을 먼저 디자인한다.”

사람인은 2016년 업계 최초로 AI 기반 공고 추천 기능을 도입한 이후, 2022년부터는 추천 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설명 가능한 AI’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채용 전환율과 구직자의 관심 직무 이동 흐름, 조직 적합도까지 분석해 정밀도 높은 추천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고도화했다.

황 대표는 사람의 커리어가 과거처럼 단선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MZ세대와 중장년 구직자 모두 직무 전환이나 유연한 커리어를 선호하며, 이는 플랫폼이 ‘직업 매칭’ 수준을 넘어 ‘커리어 설계’ 도구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채용이라는 한 순간이 아니라, 입사 전 탐색부터 직무 성장, 이직까지 커리어 전체 흐름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람인은 그 흐름 전체를 안내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사람인은 최근 구직자 대상 커리어 진단 서비스, 기업용 인재 추천 구독 서비



황현순 사람인 대표

AI기술, 자동화 아닌 선택 돕는 도구로 진화
직업매칭 수준 넘어 커리어 전 생애주기 지원

채용기간 단축, 사용자 재방문율 증가 효과
글로벌 기술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본격화

구직자에 단기 채용 넘어 커리어 전략 제안
기업에는 인재확보, 유지까지 서비스 확장

스 등 신규 기능을 지속 출시하고 있다. 플랫폼 내부 알고리즘은 지원 이력뿐 아니라 실제 클릭·탐색 행동, 전환 성공률 등을 반영해 추천 정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사람인은 AI 기반 커리어 콘텐츠 큐레이션도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 데이터를 보면 MZ세대 사용자의 70% 이상이 채용 공고 클릭 전 리뷰, 조직문화 사례 콘텐츠 등을 먼저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용자 인터뷰, 직무 후기, 실제 입사 성공 사례 등을 추천 시스템과 연동해, 탐색에서 지원으로의 전환율을 높이고 있다.

황 대표는 “채용은 일방적인 공급이 아니라 상호 선택의 과정”이라며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해석자이자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협업 역시 검토 중이다. 현재 사람인은 내부적으로 MS Azure 기반 AI 모델 연동을 실험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조직 진단, 인재 유지 분석 등 고도화된 기능 확장을 구상하고 있다. 관련 세미나 개최나 공동 연구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글로벌 기술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다.

황 대표는 “우리는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생태계와 연계해 더 빠르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부 역량과 외부 파트너십을 동시에 강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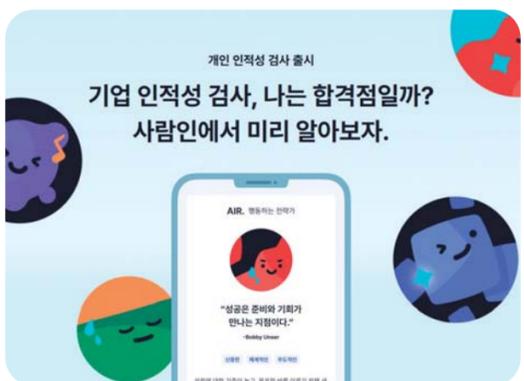
사람인은 올해 하반기 중 커리어 진단 테스트, 조직문화 자가 평가 기능, 전환 가능 직무 추천 도구 등의 신규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및 전문가 매칭, 커리어 커뮤니티형 네트워크는 기획 단계에 있으며, 사용자 참여 기반의 커리어 생태계 구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채용 플랫폼이 아니다. 사용자의 커리어 전환과 성장의 흐름을 함께 설계해주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기술은 도구일 뿐 사람을 이해하는 구조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사람인 AI 모의면접.



사람인 인적성 검사 서비스.

메트로 한줄뉴스



▲첼시, 클럽월드컵 정상 올라...이강인의 PSG 5
관왕 실패
▲이정후, 전반기 마지막 경기서 2루타 작렬...대
타 김혜성은 침묵 /사진 뉴시스

▲쇼트트랙 코치 교체하나...빙상연맹, 인사위
개최
▲강남구, 외국인 합창단 창단...참가자 상시
모집

▲중년 여성의 삶 담은 뮤지컬 ‘다시, 봄’, 지역 투
어 나서
▲피아니스트 예뵘 브론프만, 데뷔 50주년 기념
내한 리사이틀